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農村 地域의 文化藝術 發展方案 研究

— 放課 後 音樂教育을 中心으로 —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faint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wave shape in blue, green, and purple,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In the center of the logo is a smaller version of the university's emblem, which includes an open book and the text 'JEJU 1952'.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 教育專攻

윤 정 택

2010 年 8 月

農村 地域의 文化藝術 發展方案 研究

－ 放課 後 音樂教育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김 정 희

윤 정 택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8 月

윤정택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 年 8 月

목 차

표목차	iv
사진목차	iv
그래프목차	v
국문초록	vii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3. 연구의 선행문제	4
4. 연구의 범위	6
5. 악기 및 연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관악대에 대한 고찰	9
가. 관악대	9
나. 우리나라 관악대의 역사	9
다. 관악대에 사용되는 악기	11
라. 관악합주에 사용되는 악기의 편성	11
2. 농촌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문화예술 사례	12
가.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2
1) 위미중학교 ‘우미마루오케스트라’	12
2)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문화활동	13
3) 제주청소년관악단 농촌 방문 연주회	13
4)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사회봉사 음악회	13
나. 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4
1) 정선아리랑학교	14
2)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16
3) 충청북도 음성체임버오케스트라	17

4) 전라남도 무안군 비전체임버오케스트라	18
5) 경기도 고촌면 김포체임버오케스트라	19
3. 농촌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고찰	20
가. 농촌지역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20
나. 제주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실	22
다. 대안적 교수방법의 개발	23
라. 농촌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23
4. 선행 연구의 고찰	24
가. 음악교육의 문제점	24
나. 관악대 활동의 교육적 효과	24
Ⅲ. 연구과제의 설정	26
1. 연구과제(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	26
2. 연구과제(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	26
Ⅳ. 연구의 설계	27
1. 연구의 대상 및 기간	27
가. 연구의 대상	27
나. 연구의 기간	27
다. 연구의 방법	27
라. 연구절차	27
2. 월별 지도계획	29
Ⅴ. 연구의 실행	39
1. 연구과제의 실행(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	39
2. 연구과제의 실행(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	44
Ⅵ. 연구를 통한 성과	47
1. 농산어촌지역 예능교육의 활성화	47

2.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간의 문화 평준화	48
3. 발표회를 통한 지역내 청소년과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 제공	49
4. 무관심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각종 교육장비와 시설 관리 및 활용	56
VIII. 설문조사 및 통계	57
1. 설문대상	57
2. 문항구성	57
3. 설문결과 및 분석	58
IX. 결론 및 제언	71
참고문헌	78
Abstract	79
<부록>	
설문조사서(학생용: 청소년음악교실)	82
설문조사서(주민용: 난타교실)	85

표 목 차

<표 II-1> 관악합주의 편성	11
<표 IV-1> 연구일정과 절차	28
<표 IV-2> 2009년 5월 지도계획표	29
<표 IV-3> 2009년 6월 지도계획표	30
<표 IV-4> 2009년 7월 지도계획표	31
<표 IV-5> 2009년 8월 지도계획표	32
<표 IV-6> 2009년 9월 지도계획표	33
<표 IV-7> 2009년 10월 지도계획표	34
<표 IV-8> 2009년 11월 지도계획표	35
<표 IV-9> 2009년 12월 지도계획표	36
<표 IV-10> 2010년 3월 지도계획표	37
<표 IV-11> 2010년 4월 지도계획표	38
<표 VI-1> 청소년음악교실 운영학교의 악기현황	47

사 진 목 차

<사진 II-1> 위미중학교 창단연주회	12
<사진 II-2> 강원도 정선아리랑학교	15
<사진 II-3> 2005년 정선아리랑학교	16
<사진 II-4> 충청북도 음성체임버 오케스트라	18
<사진 II-5> 비전체임버 오케스트라(2008)	19
<사진 II-6> 김포체임버 오케스트라	20
<사진 VI-1> 연계교육 모습	48
<사진 VI-2> 성산읍 미천굴 방문공연	49
<사진 VI-3> 원광 요양원 방문공연	50
<사진 VI-4> 미타 요양원 공연	50
<사진 VI-5> 구좌읍 세화 요양원 방문공연	51
<사진 VI-6>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방문공연	51
<사진 VI-7> 조천읍 경로잔치 방문공연	52

<사진 VI-8 > 김녕중학교 방문연주회	52
<사진 VI-9 > 표선중학교 방문연주회	53
<사진 VI-10 > 신산중학교 방문연주회	53
<사진 VI-11 > 성산중학교 방문연주회	54
<사진 VI-12 > 지역주민난타교실	54
<사진 VI-13 > 지역주민난타교실공연	55
<사진 VI-14 > 지역주민난타교실공연	55

그래프 목 차

<그래프 VII-1 > 응답자 성별	58
<그래프 VII-2 > 응답자의 재학중인 학교	58
<그래프 VII-3 > 음악예능교육을 받은 기간	59
<그래프 VII-4 > 음악예능 교육에 대한 지출비용	59
<그래프 VII-5 > 음악예능교육을 받는 목적 및 동기	60
<그래프 VII-6 > 음악예능교육에 대한 만족도	61
<그래프 VII-7 > 음악예능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61
<그래프 VII-8 > 음악예능교육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	62
<그래프 VII-9 > 음악예술 활동의 걸림돌	62
<그래프 VII-10 > 농촌학교 음악예능교육의 필요성	63
<그래프 VII-11 > 농촌학교 예능교육 필요 이유	64
<그래프 VII-12 > 농촌학교 예능교육 필요 없는 이유	64
<그래프 VII-13 > 농촌학교에서 예능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한 여건	65
<그래프 VII-14 > 지역주민 예술프로그램 참가연령대	66
<그래프 VII-15 > 예술프로그램 참가자 직업현황	66
<그래프 VII-16 > 예술프로그램(난타교실) 참여 동기	67
<그래프 VII-17 > 예술프로그램(난타교실) 만족도	67
<그래프 VII-18 >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속적 참여 의향	68
<그래프 VII-19 >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주위 추천 여부	68
<그래프 VII-20 >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성취도	69

<그래프 VII-21 > 농촌학교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69
<그래프 VII-22 > 신설을 원하는 농촌학교 예술프로그램	70
<그래프 VII-23 >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정책	70



국문초록

1970~ 80년대만 해도 제주지역의 농촌 문화생활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했었는데, 마을과 촌락 단위로 집거를 하면서 품앗이와 더불어 농경문화 시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실례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¹⁾, 입춘굿 낭쇄몰이²⁾, 해녀노래, 오돌또기 등 무속신앙과 민요는 농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더불어 농촌 학교들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농촌문화건설의 핵심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제주 고유의 무형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전수할 인적자원이 급격히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 경제, 교육 및 모든 사회현상으로부터 소외되어온 농촌지역은 지역민의 문화욕구 및 문화예술 단체의 전략적 소비지역으로 전략하면서 마구잡이의 문화행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더욱 요구되는 지역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이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문화 형성에 오히려 방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문화의 소외를 낳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집중과 경제 제일주의의 사회현상 속에서 문화적 빈곤과 소외를 겪어왔다. 제주의 농촌사회 또한 예외가 아닐 뿐 아니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자체의 예산과 지원은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불모지나 다름없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은 우선 학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가정이 교육의 모태라면 학교는 교육기관의 중심이며 사회는 발현의 마당이며, 21세기 들어 학교가 가정과 사회와 더불어 문화적 중심으로 변해가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방과 후 교실을 통한 예술교육, 1인 1악기 연주 등 학교 교육이 본연의 목적과 함께 ‘문화인의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장려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비중이 더 커지면서 과거 농경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농촌은 소외되면서 문화예술 발현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은 경쟁이 아닌 공존이 더욱 필요

1) 중요무형문화재 71호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음력 2월에 풍어를 기원하며 해녀와 어부들이 지내는 곳으로, 2009년 9월 30일 강강수월래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신년 풍농제로 입춘날에 제주 주민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굿놀이를 하였다. 낭쇄몰이는 세경놀이와 함께 농사짓는 과정을 흉내 낸으로써 풍농을 기원했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학교와 예술단체들의 농촌 순회공연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역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위로 차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공도서관, 사회복지단체 등이 산발적인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취미와 일회성 교육위주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증가,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심리적 불안감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농촌지역의 문화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 됐으며, 농촌사회의 현실은 곧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낳기도 하였다. 아울러 학력 중심의 사회구조적 한계와 많은 학부모,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도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방해해왔다.

문화적 소외지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선 우선 ‘문화와 예술교육은 농촌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기본 명제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는 농촌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 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 과목인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예술 취향을 계발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또래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도 창의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사회도 민족 간 경계를 뛰어넘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개개인의 문화적 감수성 계발과 차이 및 다양성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대도시 부유층만의 향유가 아니라 공동화 되가는 농촌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소외된 문화로 일부분만이 아닌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자아 정체성 확립과 상호간 이해와 소통능력의 밑거름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토양이자 미래를 위한 필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촌 학교는 교육공간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의 장으로 받아들여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생태·역사·관광자원과 연계된 문화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농촌의 풍요로운 문화체험과 예술활동은 곧 학교와 마을 활성화의 방안이 되며, 농촌공동체사회가 발전하면 젊은층의 귀농을 유도해 학교 신입생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더욱 활기차고 건설한 지역사회로 발돋움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각 지역마다 실행하는 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자, 그 지역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굳어진지 오래됐다. 이를 반영하듯 문화예술 체험을 많이 접한 지역 주민들의 감성과 여유는 풍족하고,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기대 역시 풍족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은 해당 도시³⁾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체성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은 상식이 되면서 문화의 저력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자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만족을 느끼는 바로미터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9591억원⁴⁾에 이르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업 신장을 목표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고 지원과 성원도 사회복지사업 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5년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도에서도 각 지역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고려한 생활 친화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의 정책과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농촌·어촌 등 소외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드물뿐더러 지역 내의 초·중·고교의 관악대 연주와 음악예술단체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에 국한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데 뒤떨어지고 있다. 진정한 문화예술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과 자라나는 세대들이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활발한 음악문화 활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통해 번영과 발전을 견인하려는 ‘문화전쟁’은 소리 없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와 기회 참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급 학교에 구비된 다양한 악기와 교악대, 음악실 등 예술의 인적자원과 시설 및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농·어촌지역 예능교육 활성화를 토대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이 중

3) 오스트리아 ‘짚즈브르크 음악축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

4) 통계청 발표 ‘2008 지역소득’

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행해 온 다양한 음악활동과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지역 내 학교의 다양한 악기와 시설,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특히 농·어촌 학교가 수행해 온 프로그램과 연계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그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론 연구 및 제시

우선 음악 기초이론과 교육을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 음악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기존 관악부원들에게 각 악기에 대한 실기교육과 기초이론, 실내악, 합주, 오케스트라를 통한 토털 앙상블 교육으로 우수한 연주 실력자로 양성한다. 덧붙여 여러 가지 곡을 체험함으로써 악기의 연주 기량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정기연주회와 지역행사 및 주민들을 위한 연주, 각종 문화예술 축제에 참가해 기초적인 이론수업을 넘어 예술에 대한 소양을 키우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악부원들에게 전문적인 전공실기가 접목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합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음악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연주기능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에 국한하지 않은 실기교육으로 실제 연주기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에게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영역에 대한 감상과 음악교육은 물론 타 지역 학교 관악대와 연주교류 기회를 부여해 실력 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한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관악제⁵⁾와 각종 경연대회⁶⁾에 참가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음악실

5) 제주국제관악제(1995년 출범, 2009년 제14회 개최), 제주관악제(도내 초·중고 관악부 참가)

6) 전국학생아라음악콩쿨(제주대학교 주관),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쿨(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주관)

을 개방하여 주민들은 음악에 있어 수동적 대상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학교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풍부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음악적 능력 배양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학교 관악부에서 합주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음악적 심성을 갖출 수 있는 미래의 인재로 육성한다. 특히 ‘1인 1악기’⁷⁾의 연주와 합주를 통해 다양한 곡을 듣고 연주함으로써 교과서의 획일적인 음악수업 및 수업시수를 위한 음악시간을 가급적 배제해 음악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연주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합주활동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합주는 서로 호흡을 맞추어야 하고 각 개인의 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소리로 표현되는 바, 음악의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정서와 밝고 맑은 심성과 심미안을 갖게 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예술교육

지역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평생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 후 학교시설과 강사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시각을 열어줌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1회성이 아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실과(實果)를 분석해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문화예술 사례와 주민참여 대표사업으로 꼽힐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화합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7) 제주도교육청은 2010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고 설립에서 매주 2시간 정규과목에 ‘예능실습’을 편성, 전교생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인 1악기’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3. 연구의 선행문제

1) 지역적 현실

연구자가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성산고등학교가 위치한 성산읍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이 있는 제주도 동부권 관광 중심지로서 ‘올레 1코스’와 우도, 혼인지, 섭지코지, 신양해수욕장, 미천굴관광지구 등이 산재해 있어 해마다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다. 아울러 연근해(갈치잡이) 어업의 중심지로 성산포항은 제주 동부의 어업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산읍은 그리 부요한 도시가 아닌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농·어촌지역이다. 전체 인구 1만4355명 가운데 주민 대다수인 7733명이 농업에 종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2439명은 어업에 종하고 있다. 여기에 해녀도 1389명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반농·반어촌 지역으로 농·수산업 위주의 1차 산업에 지역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성산읍주민센터(前 성산읍사무소)가 밝힌 2008년도 총예산도 19억 6400만원에 불과해 지역 경제사정도 타 읍·면과 다를 바 없다.

지역 내에 음악·미술 등 예능학원은 물론 여타의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들은 없으며 방음과 조명, 무대장치 등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간 및 편의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고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유년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문화예술의 혜택은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주민들 역시 농업과 어업 등 바쁜 생업으로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예술 소양을 키우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 물론 스스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 놓여있다.

2) 지역 내 학교의 예능교육 현실

성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학교들을 보면 동남초등학교와 성산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세화중학교, 성산중학교, 표선중학교가 있으며,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앞에서 지역의 현실을 언급했듯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문학원에서 수강을 하거나 전문 강사로부터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이동을 해야 한다. 특히 부모들 대부분이 당근과 감귤, 무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거나 소라·툫 등 해산물 채취 또는 갈치잡이 등 안정된 직업이 아니어서 자녀들에게 음악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관심을 쏟기에는

8) 성산읍 주민센터 일반현황(2009)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성인들도 문화예술 향유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3) 문제의 해결방안

이러한 성산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성산고등학교에 비치돼 있는 각종 악기와 음악실을 활용해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통합예능교육’⁹⁾을 제공하면 예능교육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넘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와 외연(外緣)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¹⁰⁾ 프로그램의 개발로 일회성 또는 전시성 문화예술 접목이 아닌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場)을 마련해, 도시에 편중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내 청소년들이 수시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각종 소규모 연주회를 개최하고, 아마추어 밴드(음악동아리)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

학생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실’을 개설해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연계 및 연대체제 구축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타교실’, ‘풍물교실’, ‘가요교실’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어촌사회에서도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예·체능활동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와 연계해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10) 평생교육이란 용어는 1965년 12월에 열린 유네스코의 「성인교육 발전 국제위원회」에서 랭그랑의 ‘평생교육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4. 연구의 범위

위에서 기술한 연구와 조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례와 대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가. 본 연구는 성산읍 지역 내에 있는 성산중학교, 성산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난타교실(매주 목·금요일)과 청소년음악교실(토·일요일)을 실시한다.

나. 각급 학교별 학생들과 주민들이 음악과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특성과 이해력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수행한다.

다. 연구의 수행기간은 2009년 3월~2010년 4월까지 만 1년 1개월에 걸쳐 추진한다.

5. 악기 및 연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본 연구와 조사 수행과정에서 사용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목관악기

목관악기란 나무관에 구멍을 뚫어 음을 얻는 악기로 관악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류는 피콜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바순이 있다.

나. 금관악기

금관악기란 놋쇠로 만들어진 악기를 통틀어 이야기하며 관악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류는 트럼펫, 호른,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가 있다.

다. 타악기

타악기는 두드려서 음을 얻는 악기로 관악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류는 유올타악기인 마림바(Marimba), 실로폰(Xylophone), 비브라폰(Vibraphone), 글로켄슈필(Glockenspiel), 팀파니와 무릎 타악기인 스네어드럼(Snare drum), 심벌즈(Cymbals), 베이스드럼(Bass drum)이 있다.

라. 음계

음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음(音)의 배열을 말한다.

마. 합주

합주는 목관, 금관, 타악기가 하나의 악곡을 가지고 상호간 협조하며 리듬과 음색, 가락을 하나로 만드는 연주형태이다.

바. 난타

난타란 마구 두들긴다는 뜻이다. 1997년 리듬과 비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뮤지컬 “난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작품은 인간이면 누구나 애용하는 일상 속의 공간인 주방을 무대로 네 명의 요리사가 등장하여 급히 결혼피로연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중심으로 칼·도마·냄비·프라이팬·접시 등 온갖 주방기구와 일상용

품을 가지고 사물놀이 장단처럼 두드리며 극을 이끌어 가는데 초연 이후 해마다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으며 지금은 “난타”라고 하면 뮤지컬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나 두드리고 즐길 수 있는 전 국민이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악대에 대한 고찰

가. 관악대

현재의 관악합주단형식은 군악대(軍樂隊)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공히 군악대와 더불어 발전해 온 셈이며 그간 관악기의 발명과 개발 등으로 인해서 편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악기의 발달과정에 따라 각국마다 각각의 전통을 지녔으며 그 전통을 토대로 편성되어 있다. 일찍부터 목관악기가 발달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그 음색을 중시하여 목관악기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관악기가 발달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금관악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민족 악기인 백파이프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뒤에 금관악기가 많이 제조됨에 따라 금관악기 중심의 편성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1929년 미국관악대지도자협회(ABA: American Bandmaster's Association)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미국의 관악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저명한 관악합주단으로는 프랑스의 가르드 레퀴블리악단(1920), 파리경찰악대(1885), 영국의 그레더니어 거즈(1656), 골드스트림 거즈(1742), 스코치 거즈(1685)의 각 군악대, 미국의 골드먼 관악합주단(1911), 일리노이, 미시간, 남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각 대학의 관악합주단을 손꼽을 수 있다.

나. 우리나라 관악대의 역사

우리나라 관악은 군악대로부터 출발하였다. 갑신정변을 전후해서 일본인 교관에 의해 훈련된 별기군의 행진과 의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북과 신호나팔로 편성된 곡호대(曲號隊)를 두었는데¹¹⁾, 이것이 우리나라 군악대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군악대는 1896년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우리나라 전권대사로 민영환 일행이 참석했다가 귀국길에 세계 각 국을 순회하면서 보고들은 것을 왕실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군악대의 필요성을 상주함에 따라 광무 4년(1900.12.19) 군악대의 창설이 선포되었고,¹²⁾ 지도자로 독일인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를 초빙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20년간(1879-1900) 일본 해군 군악대를 지도하여 일본의 관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11)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1974, 83.

12) 서유택, KBA 십년사, (서울: 세종출판사), 1983, 10.

있었다. 1910년 2월 27일 에케르트가 입국한 이후에 50인조의 단원을 조직하고 6월에는 복장과 악기를 갖춘 명실상부한 군악대가 창설되었다. 에케르트는 1910년 을사늑약 이후 1915년 12월에 군악대가 해산될 때까지 당초 계약기간 3년을 넘기며 만 15년 동안 우리나라 관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해산된 군악대를 1920년 스미스박사의 주선으로 경성악대라는 이름의 민간단체로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이 또한 1922년에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구 한국군악대와 경성악대를 거친 단원들은 이때부터 유랑 악단에 입단하거나 학교에서 음악교육과 악대조직, 관악인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배출된 관악인력들이 1946년 봄부터 국방경비대에 악대조직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부터 육·해·공군 군악대 창설에 기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여년의 역사를 갖는 군악대는 각 군별로 현대식 연습시설과 좋은 악기들을 구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악대도 창설이 되어 그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이들의 활동은 군경내의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정예화 된 수준과 특유의 기동성으로 정기연주회, 해외 및 지방 순회연주회 등을 통하여 각 지역의 문화발전을 유도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관악대에 사용되는 악기

관악대에 사용되는 악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목관악기: 피콜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바순
- 2) 금관악기: 트럼펫, 호른,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 3) 타악기
 - 가) 유율타악기: 마림바, 실로폰, 비브라폰, 글로켄슈필, 팀파니
 - 나) 무율타악기: 스네어드럼, 심벌즈, 베이스드럼

라. 관악합주에 사용되는 악기의 편성은 <표II-1>와 같다.



<표II-1> 관악합주의 편성

2. 농촌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문화예술 사례

가.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 위미중학교 ‘우미마루오케스트라’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학교 1학년생 37명과 2학년생 44명 등 전체 학생 81명으로 구성된 ‘우미마루¹³⁾ 오케스트라’(지휘자 양성은)는 2009년 12월 창단했다. 창단을 겸한 첫 연주회 무대는 2009년 12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렸다.

우미마루 오케스트라의 탄생에는 위미중학교운영위원회와 동문들의 뜻과 지원에 힘을 입었다.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심성을 길러주자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2008년 농촌지역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창단을 준비하면서도 학부모와 주민들도 반신반의 했었다. 그러나 이영운 위미중 교장이 적극 나서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등의 악기를 지원했다.

농촌지역 중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설립되면서 학생들은 연주 기량을 갈고 닦으며 마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찾아가 연주회를 가지며 그동안 음악 공연을 접하지 못했던 남원읍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가져왔다.



<사진 II-1> 위미중학교 ‘우미마루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2009)

13) ‘우미’는 마을 이름인 ‘위미’의 옛말 지명이며, 마루는 ‘지역공동체’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2)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¹⁴⁾ 찾아가는 문화활동

제주 음악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청소년 음악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제주지역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공연문화 발전을 위해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장홍용 교수를 중심으로 1989년 창단됐다. 청소년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연 4회의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우수 단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매주 토·일요일 정기 연습과 함께 음악감상 등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고전음악 감상회, 색소폰 강습, 대중음악교실 등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창단 이후 국내·외에서 120여 차례 공연을 가진 데 이어 민간 음악단체이지만 전통 음악교육에도 열성을 보이면서 ‘제주청소년풍물단’을 창단시키기도 했다.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는 특히 해외 공연을 통해 제주의 예술수준과 문화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해외 공연 및 연주회 현황을 보면 일본 나가사키 청소년오케스트라 교환 연주회(1996년), 미국 샌타로사시 및 로스앤젤레스 방문연주(2000년), 미국 샌타로사시 장미축제(2003년), 상하이 국제관광축제(2004년) 등 다수의 해외 무대에서 연주를 보이면서 제주의 민간대사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제주청소년관악단 농촌 방문 연주회

관악기를 연주하는 도내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진 음악단체로서 클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을 접하게 하여 수준 높은 청소년문화활동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003년에 창단된 음악단체이다. 2003년부터 소외계층과 농·어촌 주민을 위한 방문 음악회를 비롯하여 해마다 3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 8월 15일에 재일본 거류민단본부 오사카 지부회관에서 ‘재일본 동포를 위한 고향사랑음악회’와 2007년 8월 7일에 중국연변의 조선족자치주에서 ‘해외동포를 위한 한민족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4)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사회봉사 음악회

14) 200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 법인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05년 청소년오케스트라로서는 역시 최초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받았다.

1997년 도내 청소년 23명으로 구성된 현악기 음악단체인 ‘소리샘앙상블’로 출발해 현재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미래의 유능한 음악인 지도자를 육성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YMCA의 기본 이념인 ‘보다 좋은 세상건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해마다 2회의 공연을 포함해 총 40여 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사랑과 희망축제 참가, 각종 자선음악회, 환자를 위한 병원 방문연주회 등 청소년들은 음악활동과 동시에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일본 오사카초청 연주회, 세계섬문화축제 개막연주회 등을 했으며 농촌지역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활발한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 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정선아리랑학교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인구 감소, 출산율 하락 등으로 농촌지역은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 수도 급감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으로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학생 수의 감소·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250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이처럼 학생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교육·문화·수련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폐교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¹⁵⁾

전국적으로 폐교 활용사례는 강원도 정선군 매화분교를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다. 매화분교는 현재 ‘정선아리랑학교’로 활용되고 있다. 정선아리랑학교는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존과 교육을 위해 정선아리랑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1993년 개교해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의 이해, 정선아리랑 배우기, 정선아리랑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선아리랑학교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산골마을 아리랑학교, 정선아리랑 학교, 중고생 아리랑교육, 대학생 아리랑교육,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교육 및 정선학생들을 위한 향토 문화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폐교 재산 활용 현황’에선 2008년 기준 전국 3,250개의 폐교 중 1,924개교가 매각·철거 등 처리를 마쳤고, 856개교는 임대중 이다. 그러나 470개교는 여전히 방치돼 있어 농촌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정선지역 초·중·고생들에게 정선아리랑을 통한 향토사랑 고취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함백초등학교 및 함백여고 등 7개교 23,0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에 따라 정선아리랑학교는 1999년 강원도 폐교활용 우수학교로 평가된데 이어 폐교 문화공간화 사업의 모델학교(2000), 환경부 체험학습프로그램 지원학교(20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캠프지 선정(2001) 등의 평가를 받을 만큼 폐교를 활용한 농촌지역 주민·청소년 참여형 문화공간화 사업의 모델학교로 인정을 받아 교육관계자는 물론 외국 문화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Ⅱ-2>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들어선 정선아리랑학교>



<사진Ⅱ-3> 2005년 정선아리랑학교를 찾은 일본 호사다 고교생들

2)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

전라남도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지휘자 서광렬)¹⁶⁾은 2005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군립(郡立) 관악합주단이다.

1996년 화순초등학교에 관악단이 만들어지고 서광렬 지휘자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관악단 창단 1년 만인 1997년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초등부 1등상을 받게 되었다. 2000년에는 관악단 첫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부모와 전남교육청의 관심으로 화순중학교에도 관악단이 결성됐고, 학생들은 간식비 정도만 내고 악기를 배울 수 있었다. 해마다 화순초·중학교 150여 명의 학생들이 관악단에서 악기 연주를 익혔다. 1~13기까지의 학생들 중 10여 명은 유럽과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

화순초교 관악단 부원들이 졸업한 후 들어간 화순중학교 관악단은 2005년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이 태동하는 모태가 됐다. 화순군립청소년 관악합주단은 현재까지 약

16) 서광렬은 중앙대예술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에서 호른을 전공하였고, 1996년 고향인 광주에 잠깐 들렀을 때 화순초등학교에서 관악단을 맡게 되었다.

150차례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농촌과 어촌지역에서 열었다. 문화부장관 대상,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금상,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최우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받았으며, 미국과 일본, 루마니아 등지에서 초청을 받아 문화 외교관의 구실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특히 화순군립청소년관악단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농촌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공연을 벌이고 있는데, 단원들은 도암면 용강마을을 시작으로 도암 도장마을과 화순읍 내평리마을, 청풍면 신성마을에 이어 이서면 안심마을 등 농촌지역을 돌며 꾸준한 음악연주를 펼치면서 해당 단체는 화순군¹⁷⁾ 문화예술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충청북도 음성 체임버 오케스트라

충북 음성군지역에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보급을 위해 7명으로 시작한 ‘한길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그 시초인 음성 체임버 오케스트라(단장 정진석)는 1996년 9월 2일 음성복지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지면서 재결성됐다. 1998년에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공연을 가져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며, 2009년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가지는 등 해마다 음악 연주를 통해 음성군¹⁸⁾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해 오고 있다.

음성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음성고등학교와 음성여중, 무극중, 한일중, 수봉초, 용천초, 오선초, 무극초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음악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 플루트의 협주곡과 교향곡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농촌 주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특히 정진식 단장이 무료 음악교실을 열면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등을 직접 가르치는 등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농촌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주민들도 음악 공연에 있어 관객(객체)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심어 놓았다.

음성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정기음악회와 별도로 농촌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와 함께 특별음악회 등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향후 음성청소년오케스트라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7) 전남 화순군은 2009년말 기준 인구가 6만9572명으로 약초(한약재료)와 화훼(국화)재배가 주 소득원이다.

18) 충북 음성군은 2009년말 기준 인구가 8만9716명으로 고추인삼사과 재배가 주산지인 농촌지역이다.



<사진 II-4> 충청북도 음성체임버오케스트라 연주 장면

4) 전라남도 무안군 비전 체임버 오케스트라

전라남도 무안군¹⁹⁾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1999년 창단한 비전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50명으로 전문 음악인들을 제외하고 전남 무안, 망운, 운남, 일로와 함평, 해남, 영암 등지에서 악기 연주에 재능과 실력을 갖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젊은 오케스트라 단체이다. 이 단체는 서울에서 운남 제일교회로 부임한 황승선(46) 목사와 그의 아내인 음악인 노은아씨의 귀농에서 출발했다. 황승선 목사는 수도권과 도시로 편중돼 있는 문화예술의 소외를 덜고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바이올린을 전공한 아내가 단장을 맡아 농촌지역 오지에서 오케스트라를 탄생시켰다.

처음에는 무안의 청소년들을 가르쳐 클래식 연주로 즐거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지금은 전남 지역에서 실력있는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해 음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농업인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99년 첫 창단연주회도 무안노인복지센터에서 가졌으며 지금까지 정기연주 11회를 비롯해 광주, 서울 등 국내 콘서트까지 확대해 착실히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카둔시 초청 이멜

19) 전남 무안군은 2009년말 기준 인구가 7만2417명으로 쌀을 주로 재배하는 농촌지역이다.

다권추럴센터 콘서트와 캄보디아 프놈펜 연주회 및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공연 등 농촌지역인 무안에서 출발해 세계를 향한 공연의 꿈을 펼치고 있다.

비전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공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지역 학교와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소정의 장학금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애복지시설 후원 등에 쓰고 있다.



<사진II-5> 뉴질랜드 타우랑가 한인장로교회에서 콘서트를 연 비전체임버오케스트라(2008)

5) 경기도 고촌면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

문화의 불모지인 시골 마을 청소년들로 구성된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단장 박정훈·지휘자 정성수)는 2001년 10월 창단됐다. 김포 고촌감리교회(목사 박정훈)가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15년간 악기 연주를 가르치면서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오케스트라로 변모하였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²⁰⁾에 거주하는 7~16세 어린이와 청소년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고촌감리교회가 지역 사회와 만나 맺어낸 열매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훈 목사는 농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에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악기 연

²⁰⁾ 경기 김포시 고촌면은 2009년말 기준 인구가 1만4817명인 농촌으로 쌀과 채소 재배가 주 소득원이다.

주와 외국어를 가르쳤다. 음악 교육은 인기를 끌면서 신도가 아닌 청소년들에게도 연주법을 가르쳐 줬고, 악기를 살 여유가 없는 가정인 경우 교회에서 악기를 마련해 아이들이 물러가며 쓸 수 있도록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전문 연주자들이 집중 지도와 신도들의 십시일반 지원이 모여져 교인 수 300여 명의 조그만 교회에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 단원이 주축인 김포 고촌초등학교 관현악부는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 주최로 열린 학생 예능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데 이어 올해 3위에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 II-6> 김포시 고촌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축으로 창단된 김포체임버오케스트라

3. 농촌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고찰

농촌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나 지향성을 알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는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가. 농촌지역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교육부의²¹⁾ 2004년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문화 예술교육

21) 교육부는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08. 2. 29)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했다.

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불평등과 소외를 줄이고,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전 계층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면서 학교안팎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정책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의 형태로 이루어져 온 반면, 교육정책분야에서는 주로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음악·미술·체육교육’과 기타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청소년정책분야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문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창작자와 향유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창작·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청소년도 향유자의 한 대상이었다.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된 농촌지역 청소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형태의 문화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회교육 부분은 문화관광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정부조직구조에서 문화정책은 공교육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보다는 사회교육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 문화정책 영역에서 실시되었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주 내용이었다.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부처 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 집행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요한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의 입시지향성 때문에 교육정책의 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제약되고 축소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과 대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교육단계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과목에서는 예체능 교과목의 형태로, 교과과목의 과정에서는 방과 후 활동, 특기적성활동, 재량활동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기존 교육정책 안에서의 예술교육은 그 교육적 의미나 중요성, 비중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이 단순히 악기나 미술도구를 다루는 기계적 차원에 머물거나 음악이나 연극 등을 몸소 실연하는 실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예술교육이 단지 장르 예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가 예술의 한 형식이며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교육정책 안에서의 예술교육의 특징은 교육정책 자체가 공간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교수학습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적, 공간적 자원들이 교육정책 안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풀제’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사가 학교 안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교육의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어 정책 도입당시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기존 수련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들이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문화예술교육의 몇 가지 제한점 때문에 청소년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제주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실

제주지역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사실상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중심축에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영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가 2000년부터 1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한국국악협회를 중심으로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어 2002년에는 연극, 2004년 영화 분야가 추가되었고, 2005년에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2007년 문화부 조사를 보면 학교에서 예술강사를 재신청한 희망률이 92.4%에 이르렀으며, 2008년 전국 3700여개 학교에서 2100명이 넘는 예술강사가 활동을 할 정도로 예술강사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예술강사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자료²²⁾에 따르면 2009년 학교 예술강사가 지원되는 도내 학교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전 분야에 걸쳐 130개교에 이르고 있다. 국악 분야만 보더라도 전년도 67개교에 비해 올해는 81개로 늘어나는 등 예술강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교에 1개 분야 강사 파견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분야를 중복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학생들이 받아왔던 음악 이론에서 실용 음악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못하

2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자료

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즉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책정 예산 부족 등 현실적 여건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기간 예술교육이 될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2007~2008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학교 안은 물론이고 학교 밖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사의 역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원 연수 등을 폭넓게 마련할 필요성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7년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기관·단체를 정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오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협력기관으로 참여해왔다.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지원과 과정은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다. 대안적 교수방법의 개발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적 문해(literacy)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이고, 인지교육과 감성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인간과 사물,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감각을 키우게 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제반 사회적 현상과 상황에 대한 문화적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면, 교수방법도 입시위주의 방법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주입식, 교사중심, 일방향의 의사소통으로 대표되는 입시교육에 반하여 문화예술교육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라. 농촌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의 1차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가 같은 경계구역 내에 있는 현실적 상황은 단순한 지리적 접근성을 뛰어넘어 문제의 발생과 해결을 위한 영역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문화적·인간적 자원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자원이다. 이 교육적 자원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는 청소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각종 공공시설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적·재정적 연계,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연계, 학교 교육과의 연계,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청소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hub)시스템’이 필요하다.

4. 선행연구의 고찰

가. 음악교육의 문제점

일반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 즉 지각력과 반응력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계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음악예술은 인간의 삶에 이로운 것이고,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며, 삶의 경험을 강렬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오랜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교육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²³⁾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풍부히 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음악공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음악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진학에 목적을 두든지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현실이다.

나. 관악대 활동의 교육적 효과

인간은 원천적으로 음악에 대한 필연적 욕구를 지니고 있고, 또 이를 육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노래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음악적 본성의 발로가 되는 것이다. 노래뿐 아니라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이든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인간이 지닌 음악적 본능의 하나이며, 이것은 예로부터 기악이 발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누구나 타고난 음악적 잠재능력을 계발, 육성하고 정서

2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출판사), 1992, 112.

를 순화시켜 조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적 기쁨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어떤 특정한 음악기술인을 배출시키기 위한 기능 연마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해하고 음악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관악대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주된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악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생활을 내면화시켜 인격형성에 큰 도움을 얻게 하는 일이다. 청소년 시절은 인간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황금의 시기이다. 학생 개개인은 자신이 지닌 음악적 재능을 다양하게 연출하여 봄으로써 자기실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미적 감수성을 갖게 되어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합주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협동심과 책임감을 돈독히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표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관악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대내외적 행사활동을 통하여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호흡하게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다. 교내외의 각종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등에서의 연주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융화와 단결, 협동심을 고취시키며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친근감, 악기에 대한 호감 등을 갖게 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악활동을 통한 취미 활동으로 성취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여가 활동을 즐기게 되어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²⁴⁾

24) 김수봉 : “학교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8~19.

Ⅲ. 연구과제의 설정

1. 연구과제(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을 운영해 기초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음악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가. 여러 가지 리듬을 이해하고 익힌다.

나. 음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음계를 익힌다.

다. 호흡의 종류를 이해하고 올바른 호흡법을 숙지한다.

라. 실기교육을 통하여 연주기능을 향상 시킨다.

마. 합주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음악적 심성을 육성한다.

2. 연구과제(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

농촌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교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 난타교실을 통하여 다양한 리듬을 체험하도록 한다.

나. 선율을 들으며 리듬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합주활동을 통하여 참여자들끼리 화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도록 한다.

IV.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대상 및 기간

가.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동부지역에 위치한 성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내에 있는 성산중학교의 기악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 성산고등학교 관악대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의 기간

연구기간은 계획, 실천, 발표, 정리기간으로 구분하고 총 12개월로 한다.(혹한기인 1월과 2월은 제외)

다. 연구의 방법

기초이론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고, 합주교육을 통한 음악적 심성을 개발한다.

라. 연구절차

본 연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표IV-1>과 같다.

표 IV-1: 연구일정과 절차

연구절차	추진내용	연구기간
1. 주제설정	<input type="checkbox"/>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 연구	2009.03.05~03.30
2. 연구문제선정	<input type="checkbox"/> 예능교육의 문제점 분석 <input type="checkbox"/> 관악대의 교육적 효과 분석 <input type="checkbox"/> 연구문제추출	2009.03.20~03.30
3. 실태분석	<input type="checkbox"/> 실태분석조사내용선정 <input type="checkbox"/> 실태분석	2009.03.20~04.20
4. 연구의 실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과제 1의 실천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	2009.05.07~2010.04.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과제 2의 실천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	2009.05.07~2010.04.30
5. 연구결과의 평가	<input type="checkbox"/> 발표회의 효과 <input type="checkbox"/> 참여자들의 인식변화	2010.04.30~05.10
6. 연구보고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연구결과정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작성	2010.05.10~2010.05.20

2. 월별 지도계획

본 연구에 따른 월별지도 계획은 <표Ⅳ-2>에서 <표Ⅳ-10>까지이다.

표 Ⅳ-2: 2009년 5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7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 교육 - 기초이론 교육 및 악기소개	악기
7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스틱과지법과 기초리듬 교육	모듬북, 난타통 사용
8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기초리듬 교육	모듬북, 난타통 사용
9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지역청소년
10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지역청소년
14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악기취급 유의사항과 실기	호흡법 병행
14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의 종류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15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다양한 리듬 훈련	모듬북, 난타통 사용
16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17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21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리듬 익히기	선율 병행
21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다양한 리듬 훈련	모듬북, 난타통 사용
22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3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24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28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 교육 - 음계 익히기	리듬 병행
28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9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30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31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표 IV-3: 2009년 6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4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 교육 - 선율 익히기	한도막형식 익히기
4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5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6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7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11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한도막형식 익히기
11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8bit 리듬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12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8bit 리듬 숙달	모듬북, 난타통 사용
13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14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18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연습곡 참조
18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16bit 리듬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19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16bit 리듬 숙달	모듬북, 난타통 사용
20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1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5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한도막형식 익히기
25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3연음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26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3연음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27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8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표 IV-4: 2009년 7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2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2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3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4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5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9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9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0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1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12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16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16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7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8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19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3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23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4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5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6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표 IV-5 2009년 8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6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6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7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8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9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13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13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4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5	토	광복절			
16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0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1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2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3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27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27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8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9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30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가요 및 경음악	

표 IV-6: 2009년 9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3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3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4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5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6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0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10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1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2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3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7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17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8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9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0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4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24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5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6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7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표 IV-7: 2009년 10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1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1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	금	추석연휴		
3	토			
4	일			
8	목			
8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9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0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1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5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15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6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7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8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2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22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3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4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5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9	목	18:00-20: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30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표 IV-8: 2009년 11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5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연습곡 참조
5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6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7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8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2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연습곡 참조
12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3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4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5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9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연습곡 참조
19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0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1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2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6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연습곡 참조
26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7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8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9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표 IV-9: 2009년 12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3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캐롤
3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4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5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6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0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캐롤
10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1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2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3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17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캐롤
17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8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19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20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관악합주곡

제주대학교

표 IV-10: 2010년 3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4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 교육 - 기초이론 교육 및 악기소개	악기
4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스틱파지법과 기초리듬 교육	모듬북, 난타통 사용
5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기초리듬 교육	모듬북, 난타통 사용
6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지역청소년
7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지역청소년
11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악기취급 유의사항과 실기	호흡법 병행
11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의 종류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12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다양한 리듬 훈련	모듬북, 난타통 사용
13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14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18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리듬 익히기	선율 병행
18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다양한 리듬 훈련	모듬북, 난타통 사용
19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0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21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25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 교육 - 음계 익히기	리듬병행
25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6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7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28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음악 기초이론 및 실기	교본

표 IV-11: 2010년 4월 지도계획표

일자	요일	시간	대상 및 내용	비고
1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 교육 - 선율 익히기	교과서 음악
1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2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리듬과 율동	모듬북, 난타통 사용
3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4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8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8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8bit 리듬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9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8bit 리듬 숙달	모듬북, 난타통 사용
10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11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행진곡
15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15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16bit 리듬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16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16bit 리듬 숙달	모듬북, 난타통 사용
17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동요
18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동요
22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동요
22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3연음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23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 3연음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24	토	12:30-14:3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영화음악
25	일	14:00-17:00	성산지역청소년음악교실 - 악곡 익히기	영화음악
29	목	16:00-18:00	성산중학교 예능교육 - 선율 익히기	영화음악
29	목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지도 - 기초리듬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30	금	18:00-20:00	성산지역주민난타교실 지도 - 기초리듬 익히기	모듬북, 난타통 사용

V. 연구의 실행

1. 연구과제의 실행(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

가. 음악의 기초 배양

본 연구에 참여한 ‘성산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은 성산중학교(45명), 성산고등학교(40명)로 음악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총 85명이다.

나. 합주의 필요성

음악교육에서의 기악교육은 표현능력과 연주능력을 기르며 아름답고 좋은 소리로 장중한 화음감을 이해하며 감상 할 수 있는 정서교육의 좋은 방법이며 합주교육은 아동에게 협동심을 길러주고 감정이 풍부한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다.²⁵⁾

Charles R. Hoffer는 앙상블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말하고 학생은 자기 파트의 연주자가 됨으로써 독립심을 얻게 되고 앙상블 연습은 정서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훌륭한 음악성을 계발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합주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음악적 체험과 아름다운 화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합주는 단일 악기의 연주가 아니라 다양한 악기가 여럿이 모여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신경을 쓰면서,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때로는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지혜로움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합주를 통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음악의 흐름을 따라 적응하는 적응력도 키워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훌륭한 합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생활에서의 책임감과도 직결된다. 합주를 하였던 학생들과 합주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사회생활의 모습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합주는 협동과 양보, 자기주장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원들에게 작용을 한다.

다. 합주의 실제

1) 합주곡의 선정

합주곡의 선정은 가급적 그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성산중학교 기악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인 경우 개인 악기를 보유한 학생이 적어서 매주 한번밖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이도가 높은 합주곡은 연주가 불가능할

25) 박상하, “교수논단”, 광주교대학보, 1987. 2. 21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다.

2) 합주곡의 연습

합주곡은 여러 악곡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하나인 Ob-la-di, Ob-la-da의 일부(1~5마디)를 소개한다.

(가) 목관파트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five woodwind instruments: Flute 1, Clarinet in B♭ 1, Clarinet in B♭ 3, Alto Sax. 1, and Tenor Sax. The score is in 4/4 time and consists of five measures. The first measure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accents. The second measure has a melodic line with a slur over the first three notes. The third, fourth, and fifth measures continue the melodic line with various rhythmic patterns. The dynamic marking *ff* (fortissimo) is present at the beginning of each part.

<악보 V-1> Ob-la-di, Ob-la-da, 목관파트, 1~5 마디

<악보 V-1>은 목관파트의 처음 시작부분이다. 첫째 마디에서 악센트를 집어넣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며 두 번째 마디에서의 알토색소폰과 테너색소폰은 합주곡의 전체적인 리듬꼴이 됨을 강조하였다.

(나) 금관파트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brass section. It consists of six staves: Trumpet in B \flat 1, Horn in F 2, Horn in F 3, Trombone 1, Baritone (T.C.), and Tuba. The music is in 4/4 time and starts with a dynamic of *ff*. The first measure is marked with a first ending bracket (1) and contains sixteenth-note patterns. The second measure is marked with a second ending bracket (2). The third measure is marked with a third ending bracket (3). The fourth measure is marked with a fourth ending bracket (4) and contains a circled 'A' below the staff. The fifth measure is marked with a fifth ending bracket (5). The score includes various articulations like accents and slurs.

<악보 V-2> Ob-la-di, Ob-la-da, 금관파트, 1~5 마디

<악보 V-2>에서 두번째 마디부터의 튜바와 호른, 트럼본은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며 파트 간에 호흡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네 번째 마디부터 나오는 트럼펫의 주선율은 매우 강조가 되어야 한다. 음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마르카토 연습을 강조했다. 또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악곡이므로 악곡이 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하였다. 특히 음악은 바른 음정과 리듬을 자유로이 구사할 때 음악적 표현이 가능한 것이므로 표현능력이 부족한 성산중학교 기악교실 학생들과 표현능력이 우수한 성산고등학교 관악대의 학생들을 하나의 조로 편성하여 파트별 연습을 강화 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연계하여 지도하니 연주습득 능력이 매우 빨라지게 되었다.

라. 발표회의 필요성

발표회를 통하여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연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세계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최고의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다. 연주란 작가는 사고와 감정, 신체적 움직임을 종합한 결과이며, 크기는 예술적 공헌의 최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²⁶⁾

26) Seymour Bernstein,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서울 : 음악춘추사), 1996, 233.

연주라는 행위는 전문가나 아마추어나 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연주를 통하여 얻은 자신감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과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연주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연주하고 싶은 욕망을 자아내게 할 수 있으며, 연주회를 통하여 최상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마. 발표회

1) 학교방문음악회: 김녕중학교, 성산중학교, 신산중학교, 표선중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2) 문화소외지역민을 위한 음악회: 미천굴 야외공연장, 원광요양원, 미타요양원, 세화요양원, 함덕혜정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문화소외지역과 관내의 동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성산읍 지역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에 참가하였다. 여기에 많은 성산읍 지역민이 관객석을 채워 문화불모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3) 프로그램은 관악곡과 협연곡, 특별출연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보다 가까운 무대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프로그램 중의 일부이다.

(가) 고향 그리워 행진곡

깊어가는 가을 밤에 고향 그리워 / 밝은 달만 쳐다 보며 눈물집니다.

시냇물은 소리높여 활활흐르고 / 처량하게 기러기는 울며 나는데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그리워 / 밝은 달만 쳐다보며 눈물집니다.

이흥렬 선생의 가곡 고향그리워를 행진곡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우리민족의 감성이, 그리고 행진곡의 당당함이 우러나오는 악곡이다.

(나) 베토벤 심포니 5번

이 곡은 베토벤이 처음 시도부터 완성까지 약 6년간 온 힘을 기울여 작곡한 자신의 인생관을 투영한 걸작중의 걸작이다. 그가 38세 되던 1808년에 완성됐는데 아직은 젊은 베토벤의 도전, 거센 숨결, 갈등, 슬픔, 좌절과 그 좌절을 딛고 성숙된 자아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엮여져 있다. 고뇌를 통한 자아확립의 의지와 그 성취에의 기쁨을 그대로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다)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쇼스타코비치 재즈모음곡 2번 왈츠는 자신의 음악적 무거움을 형식주의로 몰아 부치는 사회주의 당원들에게 자신도 인민을 위한 가벼운 곡을 쓸 수 있음을 증명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왈츠는 왠지 우울하고 무겁다. 러시아풍의 우수가 담긴 듯한 서정적 주제 선율을 왈츠라는 흥겨운 춤곡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감추어진 슬픔이 잘 표현된 곡으로 작곡가 자신의 암담한 현실의 감추어진 슬픔이 어렴풋이 배어나온다. 타락한 부르주아 음악가로 몰리던 31세의 젊은 음악가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5번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극치라는 화려한 찬사와 함께 복권되었다. 스탈린 정권은 이를 볼셰비키의 전진과 승리를 찬양한 것으로 해석 그를 복권시켰다. 이렇게 그는 무거운 메시지를 담은 교향곡으로 명성이 높지만 진정한 본질은 오히려 고전적인 명료함에 있다.

바) 지역주민 난타

지역주민 난타교실 운영 결과물을 무대에 올려보았다. 낮에는 바다와 밭에서 노동을 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매주 2회씩 난타교육을 받으면서 익힌 숨씨들을 자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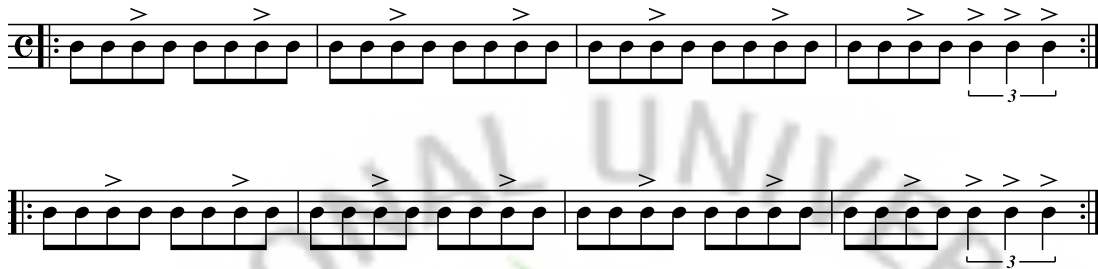
사) 크리스마스캐롤

12월의 큰 행사는 아마도 크리스마스일 것이다. 계절에 맞는 악곡을 직접 편곡하여 무대에 올렸으며, 음악회에 참가한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다.

2. 연구과제의 실행(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

가. 기초리듬 익히기

기본적인 8bit 리듬을 서서히 익혀나간다.



<악보 V-3> 8bit 리듬의 예.

나. 리듬훈련

여러 가지 리듬을 연주하여 본다.



<악보 V-4> 다양한 리듬의 예.

다. 리듬분할

리듬이 분할되는 것을 이해한다.

The musical notation for Example V-5 consists of five staves in 4/4 time. The first staff shows a single whole note. The second staff shows two half notes. The third staff shows four quarter notes. The fourth staff shows eight eighth notes. The fifth staff shows sixteen sixteenth notes. This sequence illustrates how a single rhythmic unit is divided into smaller and smaller parts.

<악보 V-5> 리듬분할의 예.

라. 분할된 리듬을 직접 연주하여본다.

The musical notation for Example V-6 is a single staff in 4/4 time. It contains four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four quarter notes with accents (>). The second measure has eight eighth notes with accents. The third measure has sixteen sixteenth notes with accents. The fourth measure has thirty-two thirty-second notes with accents. This exercise is designed to help the student feel and perform the subdivision of a single rhythmic unit.

<악보 V-6> 분할된 리듬의 직접 연주.

마. 리듬과 율동

8bit와 16bit의 리듬을 익히며 다양한 율동을 구사하여본다.

The image displays five systems of musical notation, each consisting of two staves. The first three systems illustrate 8-bit style rhythms, characterized by simple, repetitive note patterns and rests. The last two systems illustrate 16-bit style rhythms, featuring more complex and rapid note patterns. A large watermark for 'Jeju National University'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악보 V-7> 8bit와 16bit의 다양한 리듬연습

VI. 연구를 통한 성과

1. 농산어촌지역 예능교육의 활성화

성산고등학교에 비치된 악기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여기에 비치된 악기를 활용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예능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성산고등학교에 비치된 악기 현황은 <표 VI-1>과 같으며 아래 표에 기재된 여러 가지 악기를 활용해 성산중학교 기악 교실 학생들과 성산고등학교 관악대 학생들에게 예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난타교실은 단연 최고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악기명	수량	비고
플루트(피콜로)	4(1)	
클라리넷	10	
소프라노색소폰	1	
알토색소폰	10	
테너색소폰	5	
바리톤색소폰	1	
호른	4	
유포니움	4	
트럼펫	8	
트럼본	7	
튜바	2	
팀파니	4	
베이스드럼	1	
스네어드럼	2	
마칭스네어	4	
마칭베이스	1	
심벌즈	2	
셋드럼	3	
글로켄스필	1	
윈드차임	1	
비브라폰	1	
팀발레스	1	
마림바	1	
실로폰	1	
연습패드	20	
봉고	1	
카바사	1	
트라이앵글	1	
모듬북	6	
난타통	6	
합 계	114	

<표 VI-1 > 청소년음악교실 운영학교의 악기현황

2.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간의 문화 평준화

성산중학교 기악교실 학생들과 성산고등학교 관악대 학생들이 매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관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음악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감상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주력과 감상능력을 키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VI-1>은 연계교육의 일부 장면이다.



<사진 VI-1> 연계교육 모습

3. 발표회를 통한 지역내 청소년과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 제공

이번 발표회에는 성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들과 성산읍 향우회원들, 그리고 지역 내의 많은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여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가졌다. 성산지역은 공연장은 물론 영화관, 감상실 등이 전혀 없는 문화소외 지역이다. 일부러 제주시내로 나가서 감상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없으며,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드물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특별히 관내에 있는 김녕중학교, 성산중학교, 표선중학교를 방문하여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문화소외지역인 성산읍 미천굴, 원광요양원, 미타요양원, 세화요양원, 함덕혜정원,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연주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 모습은 <사진 VI-2>에서 <사진 VI-14> 까지로 볼 수 있다.



<사진 VI-2>성산읍 미천굴 방문 공연



<사진 VI-3>원광요양원 방문공연



<사진 VI-4>미타요양원 방문공연



<사진 VI-5> 구좌읍 세화 요양원 방문 공연



<사진 VI-6> 탐라장애인 종합 복지관 방문 공연



<사진 VI-7> 조천읍 경로잔치 방문 공연



<사진 VI-8> 김녕중학교 방문연주회



<사진 VI-9> 표선중학교 방문연주회



<사진 VI-10> 신산중학교 방문연주회



<사진 VI-11> 성산중학교 방문연주회



<사진 VI-12> 지역주민 난타교실



<사진 VI-13> 지역주민 난타교실 공연



<사진 VI-14> 지역주민 난타교실 공연

4. 무관심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각종 교육장비와 시설 관리 및 활용

성산고등학교는 지방 학교라는 인식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관악대원의 숫자도 자연 감소 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 50~60인조의 편제를 유지하던 악기 편제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악기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장이 잦아지게 되었다. 현재 성산고등학교 교악대원들의 수는 40명으로 많은 악기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중·고등학교 예능 연계교육을 통하여 모든 악기를 활용하여 훌륭한 합주단을 구성하고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던 여러 가지 악기들이 주인을 맞아 항상 관리가 되어 청결함을 유지함은 물론 수명도 연장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 놓은 소중한 교육장비가 사장될 수 있었지만 연계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장비가 운용 관리가 되고 있다.

VII. 설문조사 및 통계

1. 설문대상

본 설문조사는 첫 번째 성산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음악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성산중학교 학생들과 성산고 관악부 부원 등 현재 예능교육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 중·고교 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인 ‘난타교실’을 통해 음악과 예술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산읍지역 주민 35명(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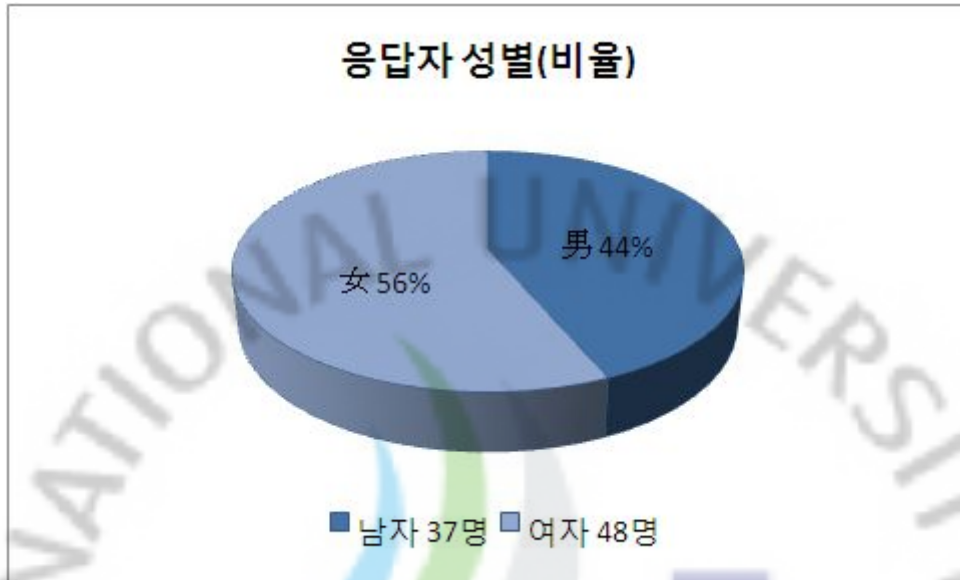
2. 문항구성

본 연구의 설문작성은 현재 농촌지역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악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함께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행정·교육당국의 관련 정책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구성에 앞서 농촌지역 특수성과 조사방법의 공정성을 고려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각 문항마다 표본을 미리 만들었고, 조사문항과 답변에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간추려 놓았다. 이는 설문내용이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고 조사내용과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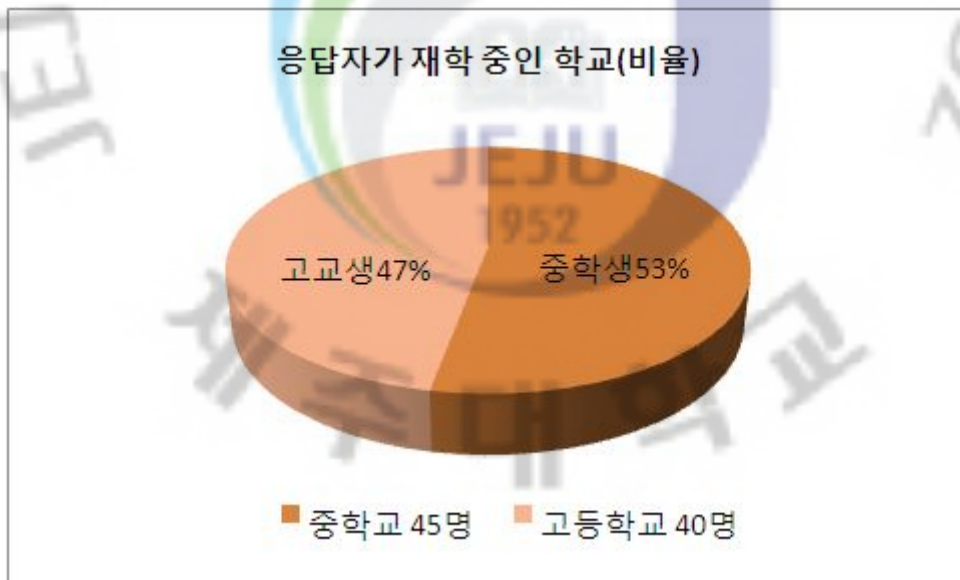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청소년 음악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85명에게는 총 14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산고등학교 40명, 성산중학교 45명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난타)교실’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 35명(여성)에게는 총 11문항을 만들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든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달간(2010. 3. 8~4. 7)에 걸쳐 진행했다. 또 중복 응답이 없도록 사전에 구조화된 설문을 제시하였다.

3- I. 설문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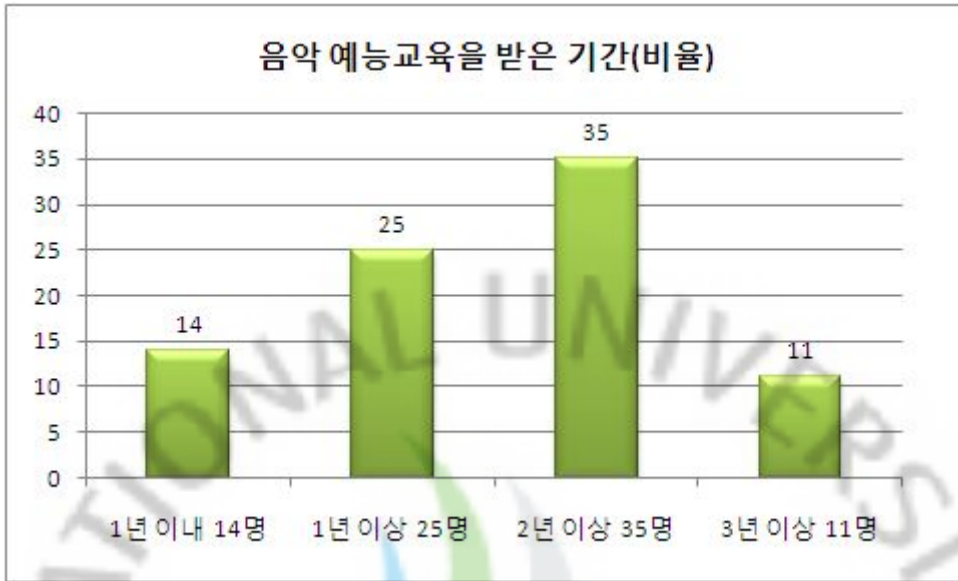
가. 청소년 음악교실 설문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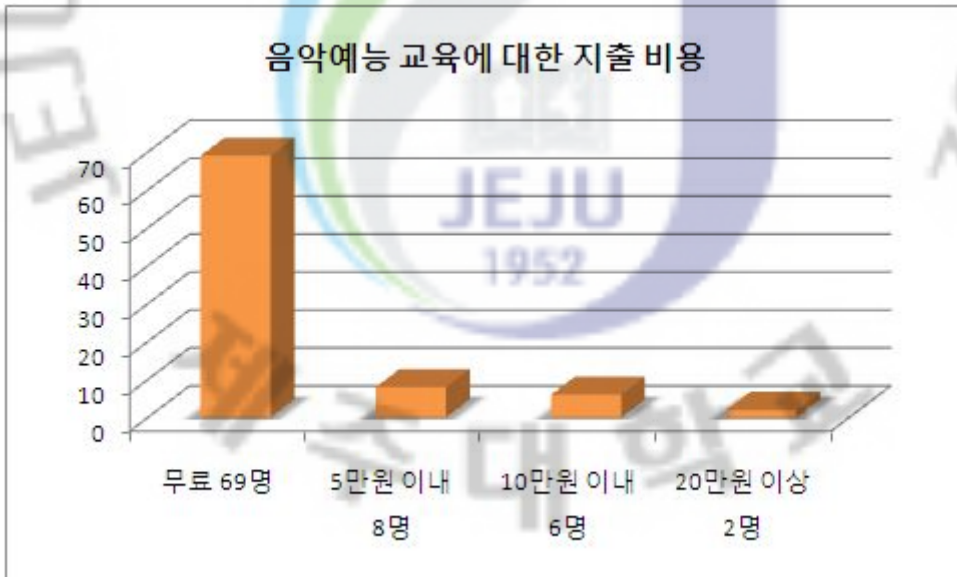
<그래프 VII-1> 학생용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성별)



<그래프 VII-2> 학생용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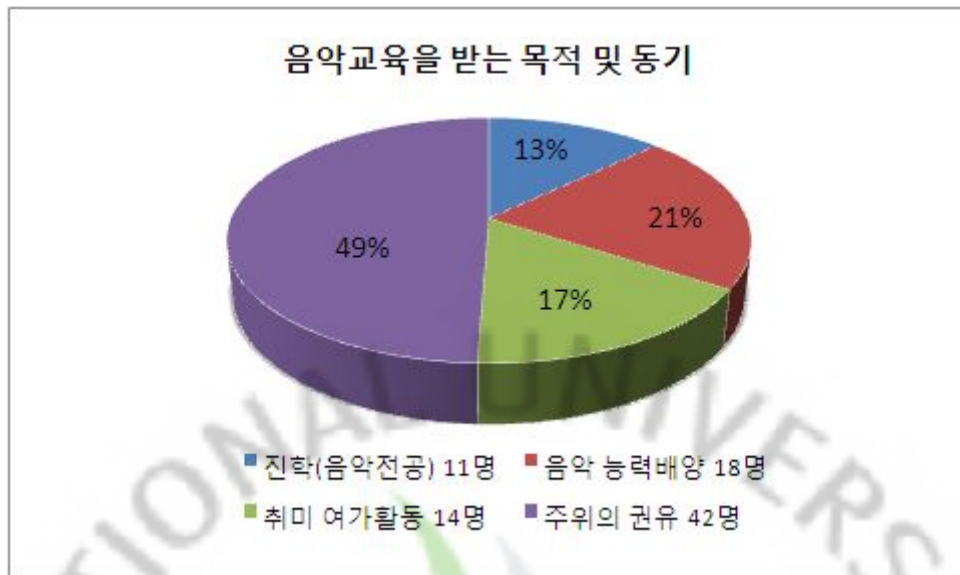


<그래프 VII-3> 음악 예능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한 응답



<그래프 VII-4> 음악 예능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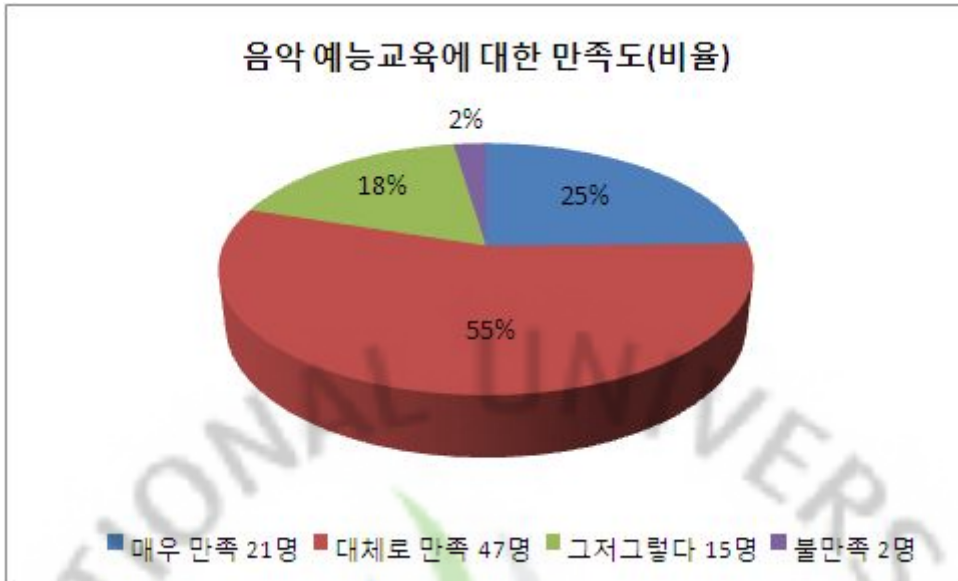
<그래프 VII-4>에 따르면 무료가 69명으로 81%의 응답자가 예능교육에 대한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5만원이상 8명, 10만원이상 6명, 그리고 20만원이상 지출하는 응답자는 2명으로 극히 적은 수가 실질적인 강의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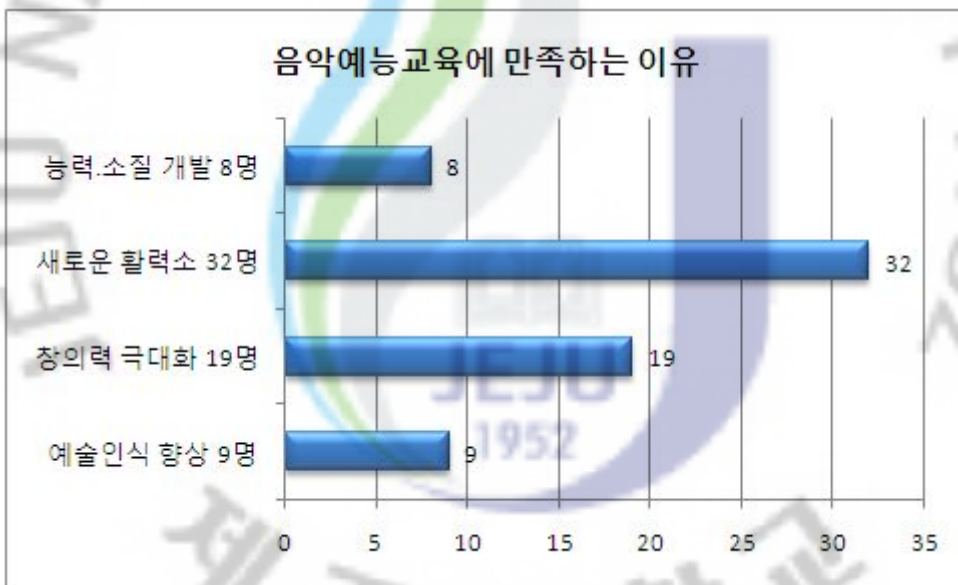
<그래프 VII-5> 음악 예능교육을 받게 된 목적 및 동기에 대해

<그래프 VII-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음악교실’에서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게 된 계기는 교사와 선·후배 등 ‘주위의 권유’가 절반에 가까운 49%(42명 응답)에 이르고 있다. 해당 응답자 가운데는 주위 동급생 또는 친한 선배가 음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참여한 경우는 급우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응답도 있었다.

특히 음악을 가르치는 지도교사의 권유가 청소년들의 예능교육 참여를 가장 많이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음악교사들은 음악적 능력과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음악에 대한 소질과 능력개발은 21%(18명 응답), 취미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17%(14명 응답)를 보였다. 반면 중·고교생들이 학교에서 음악을 배운 후 상급학교(대학) 진학에 따른 음악 전공과 전문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은 13%(11명 응답)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VII-6> 현재 받고 있는 음악 예능교육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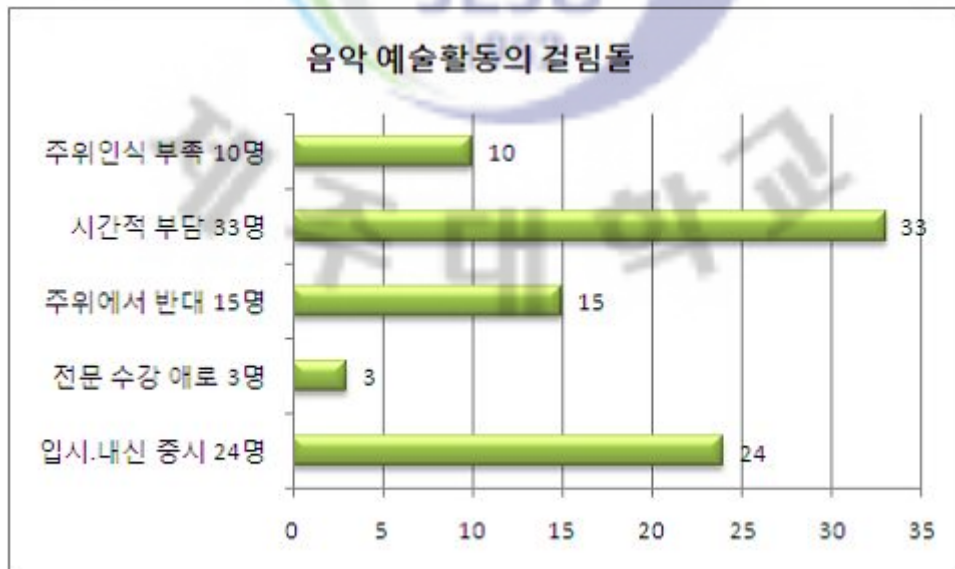
<그래프 VII-7> 음악 예능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그래프 VII-7 >에서 학교 음악 예능교육에 대한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32명은 국·영·수학 위주의 입시 과목에서 탈피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의견을 보면 예술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자신감이 얻었다는 응답자가 19명이었다. 소수의 의견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안목에 눈을 떴다는 학생이 9명이며, 새로운 능력과 소질을 개발했다는 의견도 8명이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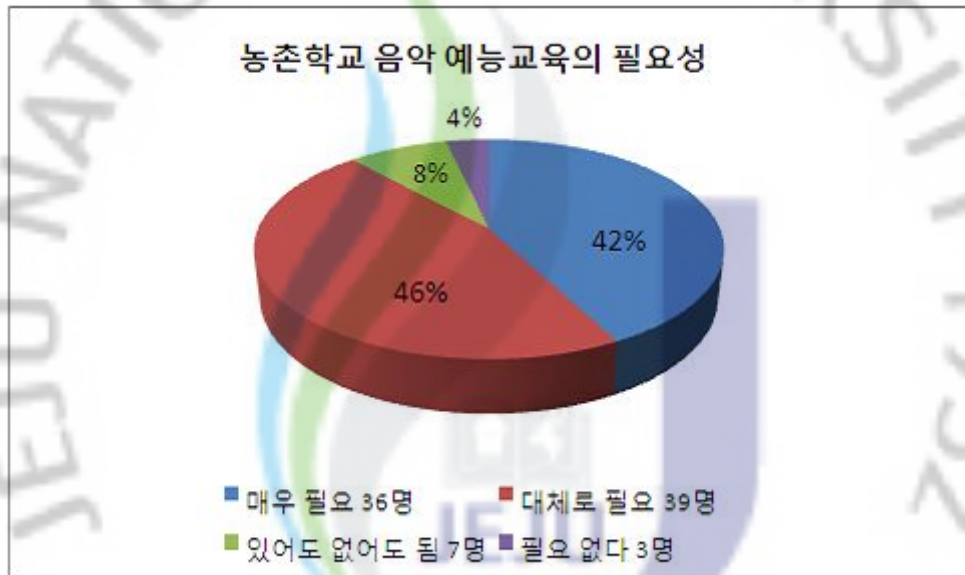
<그래프 VII-8> 음악 예능교육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

<그래프 VII-8 >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악 예능교육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보면 대학 진학 등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악을 배워도 장래와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명이 나왔다. 소수의 의견을 보면 악기 연주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응답자가 2명을 보였다. 또 악기를 연주하고 예능교육을 배우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의견도 2명이 나왔다.



<그래프 VII-9> 음악 예술활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점

<그래프 VII-9>에서 음악 예술활동을 계속하고 싶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3명은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서 저녁부터 밤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적 제약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24명은 학교에서 국·영·수학 등 입시과목을 중시하고 음악 예능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 악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아울러 부모와 선·후배 등 음악 예능교육을 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학생은 15명이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위의 편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10명이 나왔다. 여기에 전문 음악 강사진으로부터 수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학생은 3명이다.



<그래프 VII-10> 농촌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 운영에 대한 견해

<그래프 VII-10>의 분석에서 농촌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 대다수인 39명은 '대체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36명은 농촌지역에서 음악 예능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인프라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학생 7명은 농촌학교의 음악 예능교육에 대해 '있어도 돼고 없어도 된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덧붙여 소수의 의견으로 학생 3명은 음악 예능교육이 '필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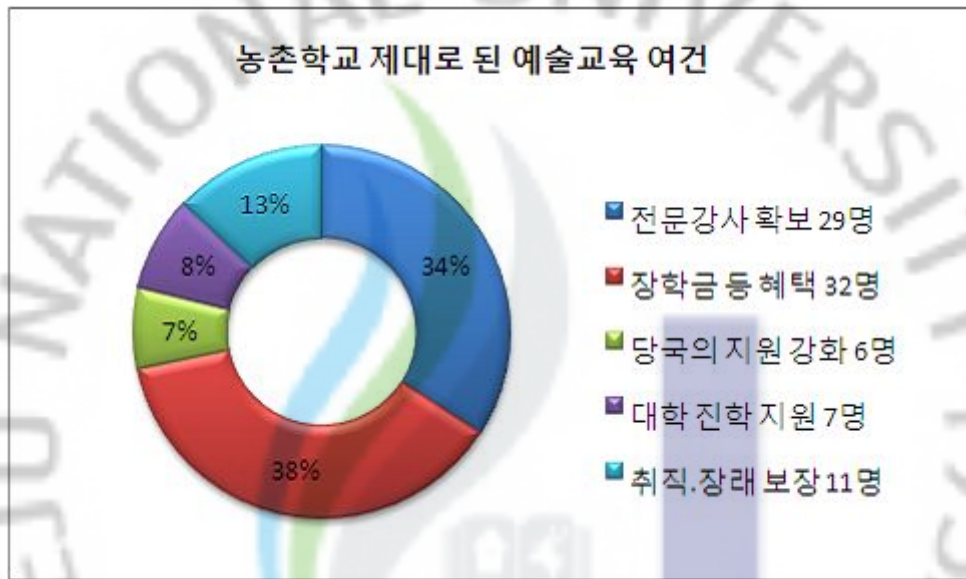
<그래프 VII-11> 농촌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의 필요한 이유

<그래프 VII-11> 의 농촌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응답자의 32명은 입시 교과목 이외에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농촌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도시와의 예술적 수준의 간극을 좁혀준다는 응답도 22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악기를 실제 연주하면서 예술적 소질을 키웠다는 응답자는 17명이다. 4명의 응답자는 음악 예술교육을 실시하면서 농촌의 문화 인프라가 발전됐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래프 VII-12> 농촌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이 필요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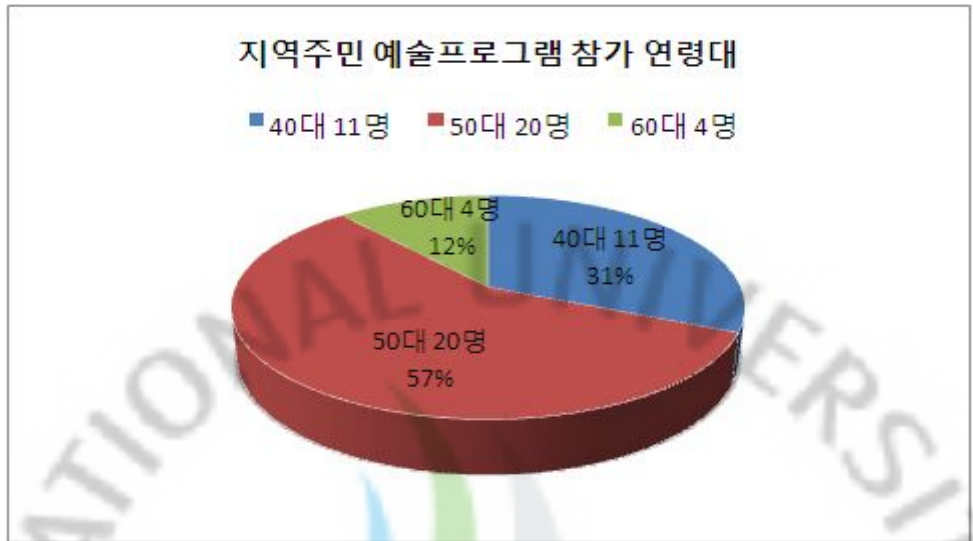
<그래프 VII-12> 의 분석에서 농촌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학생 4명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을 꼬집었다. 또 학생 3명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예능교육에 대해 부모 등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의견으로 학생 2명은 음악 예능교육이 대학 진학 등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학생 1명은 농촌에서 음악을 배워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거나 전문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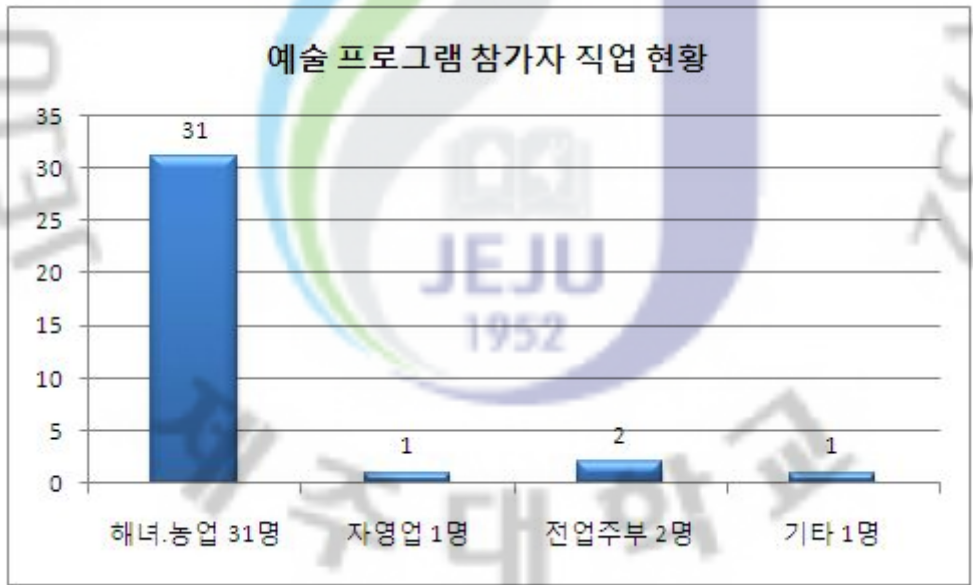
<그래프 VII-13> 농촌학교에서 제대로 된 예술교육을 받기 위한 여건

<그래프 VII-13>에서 농촌학교에서 제대로 된 음악 예술교육을 받기 위한 여건에 대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32명은 장학금 수여와 수업료 감면 등 재정적인 혜택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목관·금관·현악·타악 등 악기별로 전문 강사진(풀 강사)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9명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학생 11명은 장래에 취직(교향악단, 예술단체, 공무원)이 보장돼야 음악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응답자의 7명은 음악을 계속 접할 경우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의 의견으로 6명은 교육 및 행정당국에서 음악 예능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악기 구입과 수강료 등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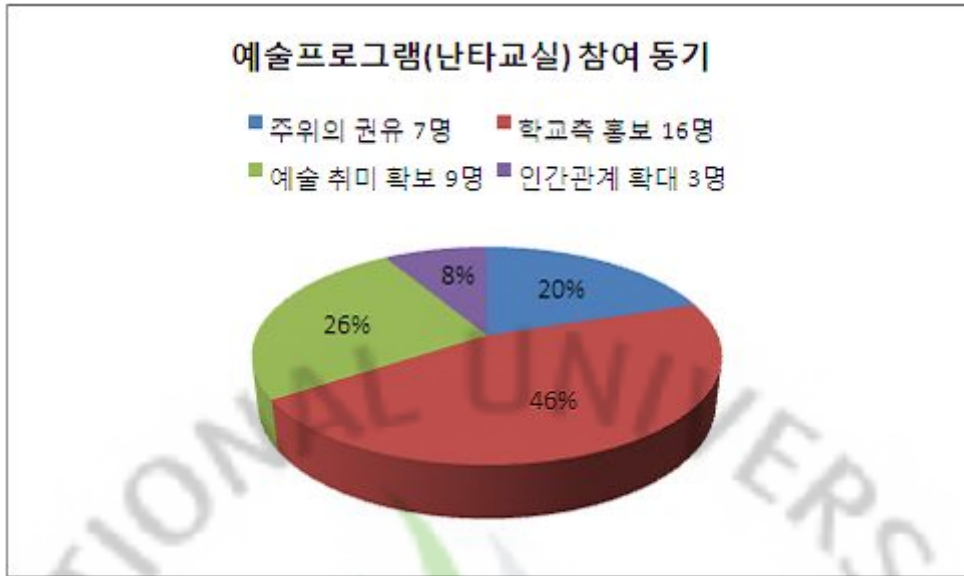
나. 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 설문결과 및 분석



<그래프 VII-14> 주민용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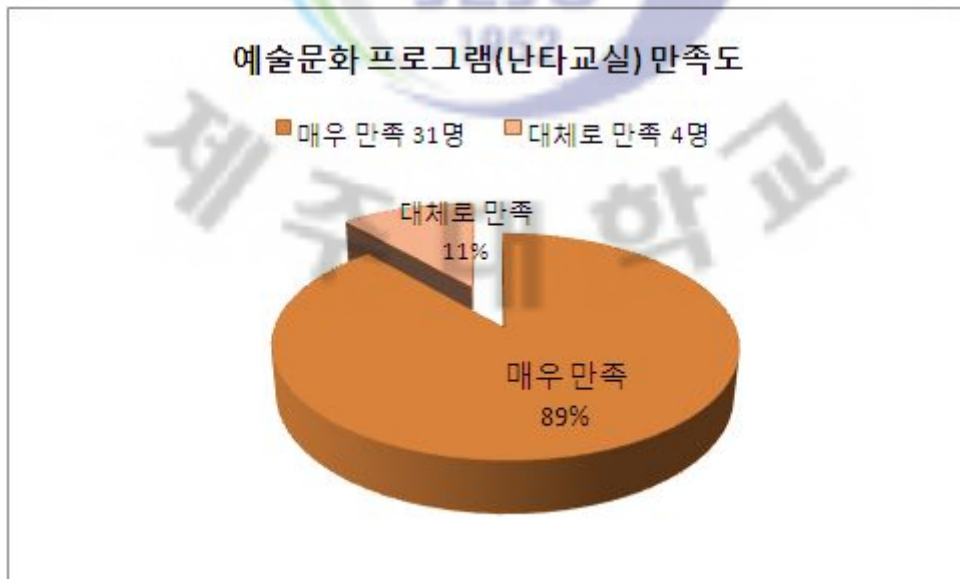


<그래프 VII-15> 주민용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직업)



<그래프 VII-16> 농촌학교 문화 예술프로그램(난타교실) 참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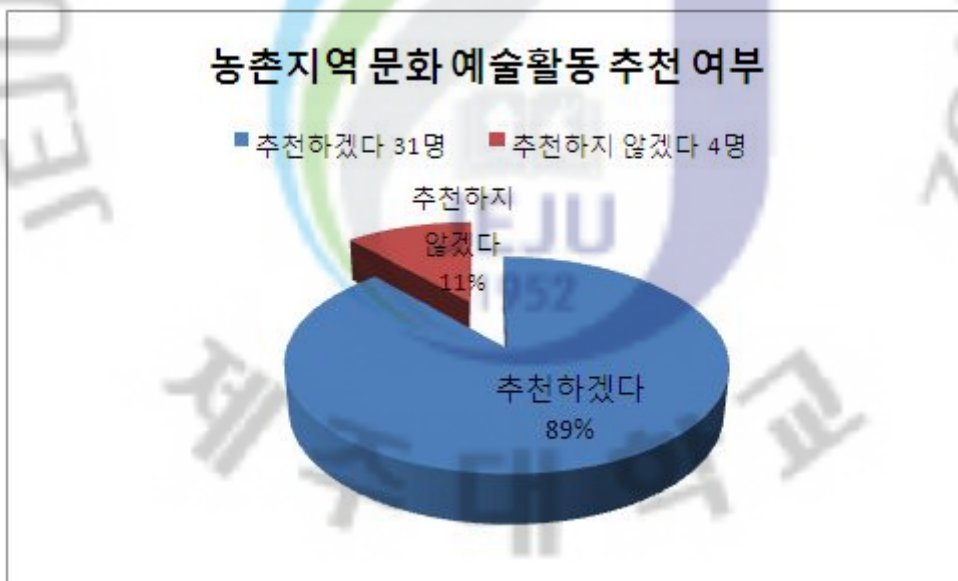
<그래프 VII-16>에서 농촌학교 문화 예술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학교측의 홍보에 의해 난타교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문화예술을 통해 취미를 증진하기 위해 참여한 응답자는 26%를 보였다. 즉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선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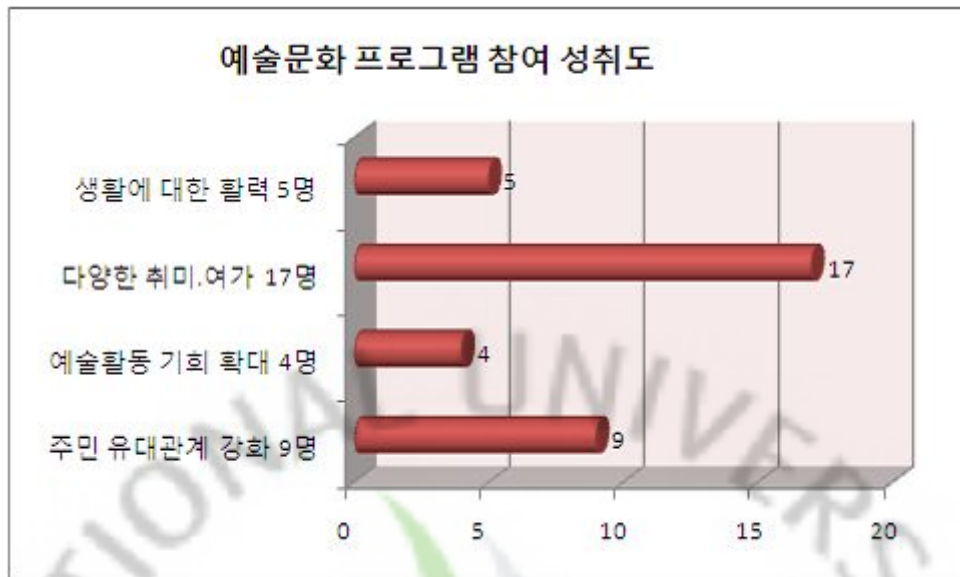
<그래프 VII-17> 문화 예술프로그램(난타교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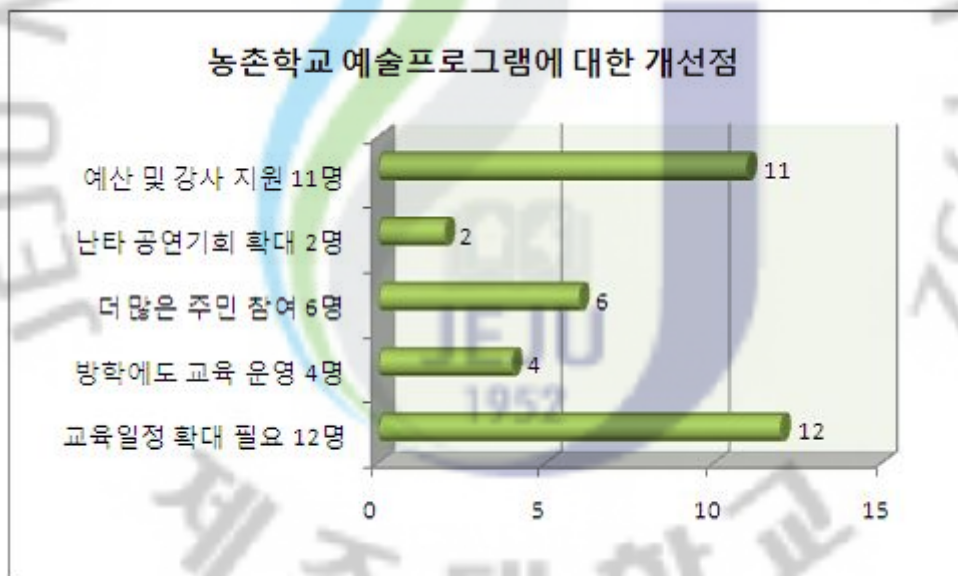
<그래프 VII-18> 문화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향



<그래프 VII-19> 문화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주위의 추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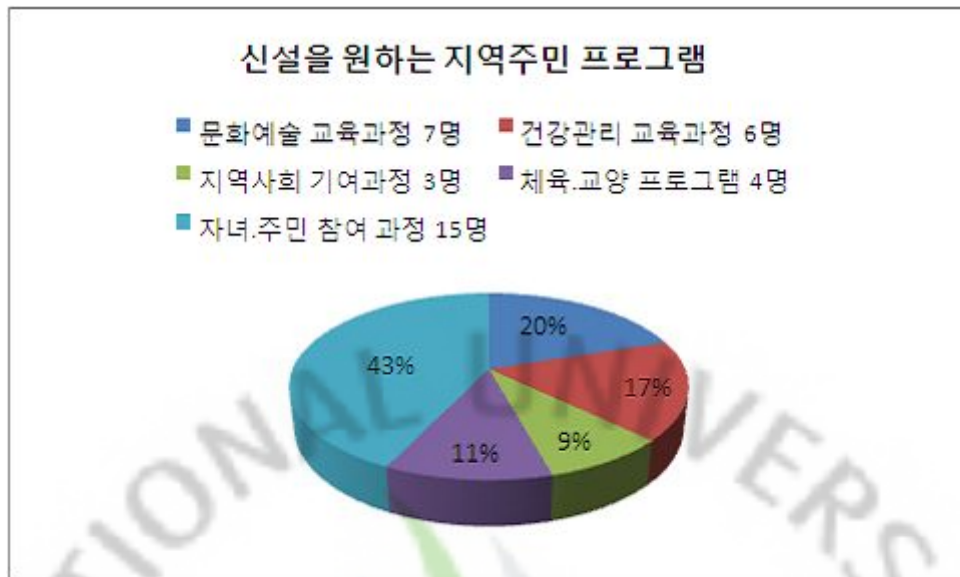


<그래프 VII-20> 농촌학교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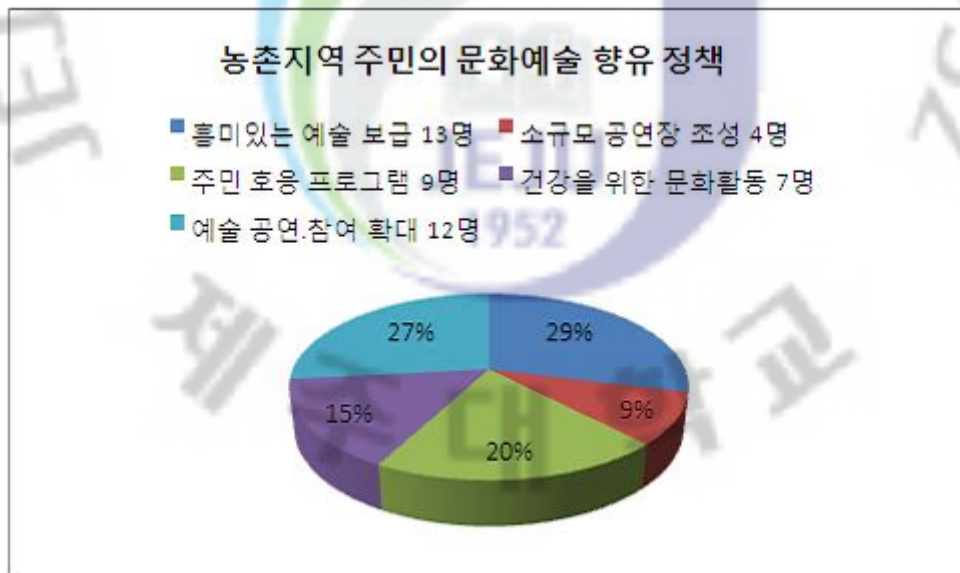
<그래프 VII-21> 농촌학교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그래프 VII-21>의 분석에 따르면 예산 및 강사지원과 교육일정 확대를 요구하는 응답자의 수가 23명으로 65%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농촌지역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VII-22> 신설을 원하는 농촌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그래프 VII-22>의 분석에서 응답자자의 20%는 새롭게 신설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농촌지역 특성상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자녀와 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VII-23>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정책에 대해

<그래프 VII-23>에서 농촌지역에서 문화예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선 흥미 있는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다. 또 농촌지역에서 음악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주민들이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이르고 있다.

VII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 사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농촌지역 예술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농촌학교 예술(음악) 교육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고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우수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에 소재한 학교와 연주단체, 문화교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지역사회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주지역 농촌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청소년 음악교실’ 및 ‘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련, 운영의 문제점과 문화예술 연계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발전 방안과 대안을 6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의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이 요구된다. 2000년 초반부터 농촌지역은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마다 폐교와 통폐합, 개명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학교 역시 성산수산고등학교→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성산고등학교 등 세 차례나 개명이 이뤄졌고, 전문계(옛 실업계)학교에서 일반계 학교로 전환됐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교육열로 인해 농촌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 도시로 가는 이농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학생수 감소→교육환경 악화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역시 발전이 저해되고 도시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낯이 위축되고 있으며 더불어 농촌 경제와 산업, 문화 및 예술, 등 전 영역에서도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교육당국에선 ‘찾아가는 문화활동’, ‘농촌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자선음악회’, 등 1회성 공연과 소수만을 위한 문화예술 보급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한창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농촌지역에서 축제와 공연을 개최하면서 거꾸로 문화예술 저변도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당국은 작금의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원하는 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거나 음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 음악 강사들에게 도시와 같

은 수준의 강사비(수강료)를 줘도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전문 음악학원 조차 전무해 예술 보급과 문화 인프라 저변 확산의 ‘딜레마’에 빠져 들고 있다. 이번 연구조사에서도 농촌지역은 갈수록 주민 소득이 떨어지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관악부 학생들에게 조차 새 악기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합주와 연주활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음악 예술활동을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보거나, 장래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등 고지식한 사고방식 역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관광·생태·소득과 연계된 예술 문화활동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사물놀이와 풍물패 등 과거 농촌에서 활발했던 문화예술 활동은 크게 ‘농악(農樂)’의 일부로 풍년을 기원하는데서 비롯됐다. 이는 소득과 직결된 예술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금의 농촌지역에서 공연되는 클래식 연주, 난타 공연, 가곡의 밤 등은 주민들 입장에서 옛 농악과 풍물놀이와 달리 소득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악 예술활동은 그 취지와 달리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은 ‘흙에 살리라’는 ‘귀촌’, ‘귀농’과 더불어 관광과 생태, 역사를 접목한 21세기 들어 문화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즉 폐교를 활용한 공연장, 농촌 문화교실, 예술인 마을, 음악을 통한 심신치료 등은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에다 문화 예술환경을 접목한 ‘그린·에코 투어리즘’²⁷⁾이 뜨면서 주민 소득과도 직결되고 있다. 아울러 그린·에코 투어리즘은 관광객과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실제 본 연구 대상인 성산읍 지역은 세계자연유산²⁸⁾인 ‘성산일출봉’이 있고, 특히 2007년부터 시작돼 지금은 그린·에코 투어리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제주올레길 걷기’²⁹⁾와 관련, 올레길 1, 2, 3코스가 있는 지역이 성산읍이다. 최근 국내외 관광객들은 물론 단체 수학여행객들은 올레 코스를 비롯해 성산일출봉을 찾고 있으나, 유명한 자연관광지에서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27)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 문화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은 같은 개념으로 우리말로 ‘생태관광’ 또는 ‘환경관광’으로 불리고 있다.

28) UNESCO(유네스코)는 2007년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했다.

29) 제주 올레길은 전직 언론인 서명숙씨가 개척했다. ‘올레’란 우마차가 다니는 큰 길에서 부터 집 대문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제1코스는 성산읍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하며 현재 16코스까지 있다.

이에 따라 올레길 등 관광생태자원을 문화 예술자원과 접목할 경우, 21세기 농촌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잠재적 보고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레길이 인기를 끌면서 민박, 음식점은 물론 규모가 작은 소매점에서도 매출이 올랐고, 브랜드화 되면서 ‘올레길 감귤’, ‘올레길 워킹화’ 등 대박상품이 쏟아진 것을 감안해 여기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올레길 중간 휴식코스에 소규모 공연장과 객석을 갖춰 관광객이 함께 하는 풍물 공연,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악기 연주하기, 자연과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 마음을 비우는 명상곡 듣기를 비롯해 작은 음악회를 열 경우 올레길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소득 자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과 산촌, 우도 및 마라도 등 벽지 도서 등 문화예술 소외지역과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찾아가는 문화활동’³⁰⁾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복적인 내용으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말 그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점,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소수의 소외계층에 국한된 점에서 보다 나은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농촌 지역주민 즉, ‘수혜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예술단체)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구성원인 학교와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단체 간 파트너십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계 협력 시범 음악연주 사업과 더불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민을 위한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이 우선 선행돼 개발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농촌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만족과 호응도를 극대화하고 예술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심이 전제돼야 한다.

농촌지역 문화예술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창의력을 키워나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객체에서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면서 음악과 예술 발전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교악대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은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30) 제주도는 ‘201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연극 5개, 국악 9개, 음악 14개, 무용 5개 등 총 46개 단체를 선정,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현장 평가를 위해 주부 모니터 33명을 위촉했다.

한다. 이를 매개로 음악 전문 인력의 양성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예: 난타교실, 풍물교실, 플루트교실, 색소폰교실 등)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된다.

체계적인 운영과 꾸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음악 관계자들과 지도강사, 예술인들이 음악교실 참가 주민에 대해 일일이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거나 경지에 이르면 수료장 및 상을 전수하는 한편, 정기 공연과 연수 및 축제 참여 등으로 유대관계를 끈끈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자생단체(부녀회·청년회)는 학교에서 별이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 공개 연주회와 강연, 워크숍 등을 열고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소외마을을 대상으로 한 ‘토요문화예술교육’³¹⁾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부모와의 연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학생과 지역사회 단체 및 구성원간의 자매결연 추진, 지역축제 참여, 학부모·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 기회를 넓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평생 문화예술교육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학기간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음악 페스티벌 또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경우 농촌지역의 문화예술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넷째, 농촌 소재 학교의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도입 할 재정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공간과 제반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들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문화 나눔 정책’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 책임 강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 악기와 좋은 시설을 갖춰도 정작 가르칠 사람이나 예술교육을 전수할 강사가 없으면 농촌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문 책임 강사들은 농촌지역의 문화 자생력 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교육의 첨병임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컨설팅과 농촌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소외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체험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의 전문 인력 파견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초등학교 방과 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복지시설·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

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펼치는 ‘아르떼’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르떼(Arte)’란 이탈리아말로 예술을 일컫는다.

육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 책임 강사를 배치할 경우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우는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지역 공연장과 연계된 상주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별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 자생적 활동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교 관악대도 이와 연계해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꾀할 수 있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영위할 지역문화예술센터가 설립돼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해야 할 사회 역시 학교 사회의 연장선 위에서 참된 문화교육을 실현하는 장(場)이 되어야만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는 미래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시대의 도래는 학생은 물론 주민들이 교양적 증진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적 인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농촌지역에서 공연 및 관람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소규모의 실내악을 연주할 수 있는 문화공간마저 박탈당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주민은 물론 학생들도 이용함으로써 부족한 교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예술 보급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무대가 선보일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곳은 비단 음악연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도 예술과 취미활동, 교양을 영위할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미술활동 등 창작공간으로서 지역 문화의 집, 미술관, 박물관, 청소년문화시설 등 각 분야를 망라한 프로그램 시행 가능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역문화센터에서 특기 적성, 재량활동, 방과 후 활동 등 단체 및 개별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측은 교육 공간, 공연 공간, 실습기자재, 교육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사 재교육 등을 통해 지원 또는 활용이 가능하다.

전문 강사들과 연계를 통한 연주회와 음악 배움의 장소인 지역문화예술센터는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평생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덧붙여 농촌주민들은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에다 축제와 각종 행사시에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곳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은 예부터 전래되고 있는 독특한 풍습과 민요, 구전, 신앙, 축제를 비롯해, 특이한 제조 및 가공기술을 가진 특산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마을마다 전승 계승되는 유·무형의 전래 풍속과 민요 등 문화적 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지역문화예술센터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센터는 또 문화 정신적인 측면 이외에도 소득효과,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등 경제 효과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까지 과급될 경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농촌의 진정한 모습과 아름다움은 예술, 음악, 시의 영감이며 그 힘은 농촌지역 사회의 모든 성장 동력을 들게 한다. 농촌에서의 다양한 문화 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조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공동 학습과 생산은 물론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기적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해지면 해당 지역의 인문, 자연, 역사성을 동시에 계승 발전되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농촌은 정체되지 않고 나날이 새로움을 더한 활력이 넘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차원의 예술교육은 지역 내 학교에서 공동 참여하여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을 위한 난타교실은 성산리 지역과 온평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그 호응도가 아주 높았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또 농촌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응답은 94%에 이르는 등 만족도와 호응이 기대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매주 2차례에 걸쳐 2시간씩 이뤄지는 ‘난타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음악적 소양을 익히고 더욱 풍부한 문화예술을 경험함은 물론 앞으로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도 주민들에게 신명나는 공연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실현하고 농촌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끌어 나갈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역내 학교의 예술담당교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인, 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지역문화 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의 지역문화 예술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예산 확충과 지원 단체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인 경우 이미 1995년부터 문화예술발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및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5년간 30억원의 기금을 추

가로 조성하는 문화예술 강화를 위한 기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본예산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지원 단체의 범위도 확대해 지역사회 학생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과 지원책들이 잘 받아들여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봉. “학교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촌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성공하는 농업이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마상진·최경환.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09.
- 백병동. 「교양의 음악」. 서울: 지학사, 1985.
- 서유택. 「KBA 십년사」. 서울: 세종출판사, 1983
- 실천민속학회.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 사업 시리즈」, 2010.
- 안중현.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한국학술정보, 2009.
- 유태희. 「학생발달과 음악교육」, 한국방송 통신대학 출판부, 1985
- 유승우·박경철.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2009.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출판사, 1992.
-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1974.
- 하중수. “클라리넷 연주법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한승모. 「농촌아동의 합창교육을 통한 음악적 표현력 신장」. 아르떼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공모, 2005.
- Person, Bruce. 「Comprehensive Band Method」 Neil A. Kjos Music Company」
- Bernstein, Seymour.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서울: 음악춘추사, 1996.
- 기 타 문 헌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 2008. 2009.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계, 2008. 2009.
- 「세광음악용어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2001.
- 경기도청. 「경기도농촌체험관광」 2010.
- 오마이뉴스 예술교육 릴레이 인터뷰. 「폐교를 되살려 문화예술 바람 불어넣다」 200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2008~2009.
- 제주도문화예술연감 2007, 2008, 2009.

ABSTRACT

The research of ways of cultural art development in rural areas.

–Focusing on extracurricular music education–

Yun, Jeong-Ta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Jeong-Hee

The rural culture lives in Jeju had been relatively affluent compared with city regions only by 1970's and 1980's. The practice of an agriculture as well as exchange of labor was progressed actively while living in village unit.

For example, Shamanism religions and folk songs such as ' Jeju Chilmeoridang youngdeunggut' , 'Ipchungut', 'Nangswemol', a woman diver song and 'Odolttogi' have naturally led rural residents to a cultural art.

However, the key power of rural cultural development is gradually disappearing because of decline of population and rural schools. That is, the human resources, who succeed to an Jeju's uniqu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struct it, have decreased.

Nowadays, the awareness toward cultural art rises and its importance is mentioned, but rural areas estranged from culture, economy, education and all social phenomena are becoming just a strategic consumption area of cultural desire of residents and cultural art associations. Because of that, cultural performances cannot be systematic in rural areas.

These phenomena interrupts the formation of local cultures which have voluntary,

autonomous, productive and evolutive features that is required in the area of local self-government. They also results in an alienation of another culture. The agricultural villages have gone through cultural poverty and isolation in the phenomena of city concentration and economism. A rural society of Jeju is the same case. Such an area became like wasteland in the field of culture arts since the population dramatically decreased and the budget and support of the administration we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We should find out a new alternative from a school in order to expand artistic rural local culture. Just as a family is the basic of education, a school is the core of an education institution and a society is the field of revelation. In 21c, the school is actively changing into the cultural center with the family and the society.

The school education achieves the fundamental aim of school through extra education after school such as art and musical instrument classes. Moreover, the 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horities claims the policy strengthening the cultural art education while satisfying the social request, 'the foster of cultured person'.

However, cultural art education is concentrated to students and citizens living in urban areas. It is true that countryside is relatively isolated and its competition in developing artistic culture is dropping.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coexistence of city and countryside, not competition between them, is necessary in the field of cultural art education. That's because a performance tour which the school in a city and the artist groups are performing as a consolation for the areas isolated from culture.

Even though, a citizen autonomy committee, a library, a welfare group and so on within agricultural villages operate a active cultural program, they are not systematic and just one-off education.

Decreased population, peasant deficit, aging as well as economical anxiety in rural areas is the main factor to cause residents to leave their countryside.

In such a phenomena, the culture of agriculture villages is difficult to be accessed and even has the stigma of the region alienated from culture.

In addition, the credentialism and the negative perspective of students and parents have interrupted the activation of cultural art education.

To remove such a stigma, we should first retrieve unique identity and sensitivity in rural regions based on the fundamental proposition 'culture and art education make

rural areas rich'.

In case of music, integrated cultural art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o build the cultural sensitive through the program of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in school, and form a new school culture. Peer culture should be formed and students' own artistic talent should be developed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pecialty and aptitude course. personality and sensibility have been emphasized in order to foster creative human resources in the introduc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Culture art education has imperatively been required, which make the develop of individual cultural sensibility and understanding of variety possible while coming multicultural society in agricultural villages.

Now, culture art education can be a tonic for rural residents as well as for rich citizens in a city. It plays a essential role for our future and it is like a solid ground by establishing our identity and interacting each other through various art experiences that all people can enjoy.

Therefore, to achieve such a thing, rural local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educational field and cultural space of residents, They should also operate locally differentiated and cultural art programs associated to biology, history and tourist sources that people can experience.

The affluent cultural experiences and art activities in rural areas are the method of activation of schools and villages. Then,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community will make our society more soundly and actively because many youth return to the countryside and new students and, at the same time the whole population increase in agricultural villages.

- ① 음악과 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목도 넓어졌다.
- ②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 ③ 국·영·수 입시과목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 ④ 학업 이외에 다재다능한 소질과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8. 음악 예능교육을 받는데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6번 문항에서 계속)

- ① 상급학교(고등·대학교) 진학을 위한 교과목이 아니어서 도움이 안 된다.
- ② 부모와 주위에서 장래의 진로를 볼 때 악기를 배우는 것을 반대한다.
- ③ 음악을 배우는 과정이 어렵고, 지도와 교육내용이 지루하다.
- ④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9. 앞으로 음악 예술활동을 하고 싶는데 제약이나 걸림돌이 있다면?

- ① 학교측에서 입시와 내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
- ② 전문학원 및 전공강사가 없는 농촌지역에서 음악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 ③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장래를 위해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 ④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남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다.
- 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10. 농촌지역 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④ 필요 없다

(※ ①,②번 선택자는 ☞11번 문항으로 ※ ③,④ 선택자는 ☞12번 문항으로)

11. 농촌지역 학교에서 음악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10번 문항에서 계속)

- ①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학원이 없는 농촌에서도 예술교육의 간극을 메워준다.
- ② 수강료나 레슨비 등 비용을 내도 농촌에선 악기를 배울 여건이 쉽지 않다.
- ③ 음악과 예술 대한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대신 채워줄 수 있다.
- ④ 학교 내 일반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12. 농촌지역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11번 문항에서 계속)

- ① 악기를 배우는 데 있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 ②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 ③ 농촌에서 음악을 배워도 도시 학생들과 격차가 벌어져 입시 도움이 안 된다.
- ④ 음악을 배워서 전공하고 싶어도 학원수강 및 강사지도를 받는 것이 힘들다.

13. 농촌지역 학교에서도 제대로 음악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 ① 새로운 악기 구입 및 각 파트별로 전문 강사진(강사 풀)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수업료 감면 등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
- ③ 학교와 지역 주민, 행정기관 및 단체에서 예술문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 ④ 농촌지역 음악전공 학생들도 서울지역 등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⑤ 소질과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진로(유학·취직 등)를 보장해줘야 한다.

14.(기타) 농촌지역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교육에 대해 건의할 내용을 써 주십시오.

()

■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설문조사서(주민용:난타교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서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차후 보완점을 찾아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연계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 질문항목에 대하여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고 농촌지역에 예술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0. 03.

조사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윤정택

TEL 064-749-8915 / 010-2696-8915

1. 귀하의 연령은?

-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 ① 농업·어업인(해녀) ② 자영업자 ③전업주부 ④전문직 ⑤ 기타

3. 귀하께서 ‘농촌지역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난타교실)’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① 주위의 권유로 ② 학교의 홍보를 통해 ③ 예술활동을 통한 취미를 갖기 위해서
④ 지역사회 예술 진흥을 위해 ⑤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난타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5.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께서 참여하신 프로그램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얻은 성취감과 호응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음악을 배우면서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넓어졌다.

- ② 난타를 배우면서 예술활동 참여기회가 넓어졌다.
- ③ 농촌에서도 다양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④ 난타를 접하면서 평소 활동량도 늘고, 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다.

8.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점은?

- ① 교육과정이 6개월 단위여서 일정을 더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 ② 방학기간에도 난타교실을 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③ 많은 주민들이 난타를 배울 수 있도록 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④ 난타를 통해 농촌 문화예술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공연 기회가 많이 주어 졌으면 한다.
- ⑤ 행정·교육당국에서 예산 및 전문강사 지원을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

9. 농촌지역 학교에서 새롭게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 교육과정 프로그램
- ② 건강관리 교육과정 프로그램
- ③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 양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④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 교양 교육 과정 프로그램
- ⑤ 자녀,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10.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남녀노소를 떠나 흥미와 재미있는 문화예술 보급이 필요하다
- ② 소규모 공연장을 갖추고 정기적인 대중 음악회 개최가 필요하다.
- ③ 농촌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④ 고령화에 대비해 마음의 여유와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이 필요하다.
- ⑤ 열악한 조건에서도 공연과 주민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11. 향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바라는 점, 개선점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